문화매일신문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Gyeongsangbukdo Seongju Office of Education

제 1511호 2024/1/3/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동인선전구간착공임박.도민청원 1호에 대한김동연약속현실화

국가철도공단 잔여 10개 공사 구간 시공사 선정 완료

경기도 도민청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 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km,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었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올해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2월 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 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건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 밖에도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 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기 남부지역 교통편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 구간 착공 현실화로 경기 도민청원 1호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위해 동인선 뿐 아니라 KTX.SRT 경기북부연장, GTX, 광역철도 추진 등 도내 철도망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도시재생사업 연계 스마트기술 구축한다

국토부 공모에 강진군·영암군 선정돼 국비 10억 확보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영암군이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이미 선정돼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교통, 안전·소방, 관광, 보건·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0곳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컨설팅을 거쳐, 강진과 영암 2곳을 국토교통부에 제출,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비 5억 원과 군비 약 3억 원씩이 투입된다.

선정 사업은 ▲강진군 병영면 '응답하라! 스마트 한골목길' ▲영암군 영암읍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다.

강진군은 병영면에 스마트 관광플랫폼과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 안내 등 관광 분야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영암군은 영암읍의 불법 주차와 잦은 교통사고 해결 방안으로 스마트 주차시설 및 미디어 전광판 설치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교통안전을 도모한다.

2곳 모두 단기간에 효과가 우수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스마트서비스 분야를 발굴해 다수가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재생효과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23.12.14.)…건축물 환경·에너지 관리 중점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국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4.6%이나, 서울시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하여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며, 그 중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23.12.14.),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m²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하여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었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올 한해 14조 1,802억원 역대 최대 규모 투자유치 성과 달성!

전체 실적 중 68%가 국가전략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 차지
SK실트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대규모 유치 성과 두드러져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으로 우수기업 투자 제도적 기반 마련

경상북도는 올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1,802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이는 연초 세운 목표액 8조원 대비 77%를 초과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9,807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국가전략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전체 투자유치 실적 중 68%를 차지해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지난 2월 SK실트론(반도체 웨이퍼)과 1조 2,36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대규모 투자유치의 첫걸음을 열었으며, 에코프로(2조 5천억원), 포스코퓨처엠(5천억원),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합작법인(1조 2천억원)과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및 인조흑연, 니켈정련 분야의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연이어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북도가 올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와 포항(이차전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또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의 분야별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협력 중소기업의 연대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산업별 밸류체인(가치사슬)이 형성되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인 세계시장에서도 부지런히 뛴 한해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전략사업 연계 방산 및 항공 관련 기업과의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했다. 그 결과 미국 PMC, 도레이, 화유코발트 등 해외 우량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1등 기업을 국내시장으로 눈 돌리게 한 투자유치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기업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유치된 기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결과로 올해 약 30억원의 지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이뤄냈으며, 내년에도 국비 5% 상향 지원에 따른 지방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활기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에 구미국가산업3단지 복합센터(특교세 20억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사업"에 상주시 기업 이전 촉진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특교세 70억원)이 각각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90억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했다.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추진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지원 범위를 개정했다.

기존 신규 상시 고용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 투자유치를 위한 우수기업이 도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경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이차전지)과 구미(반도체, 방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울진(원자력 수소), 경주(SMR)에 특화된 관련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국가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뛴다는 각오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인프라를 활용, 투자유치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기여한 전기요금 차등제, 기회발전특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한도 없는 투자 인센티브,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상북도가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해 여러모로 힘든 경제 여건이었으나, 경북도는 위기를 기회 삼아 투자유치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인 14조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유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3박자가 균형을 맞춰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도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스킨십 강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 하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2024년 신년사]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청룡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도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물가를 비롯한 경제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는 있지만 경북의 역량이라면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사람들이 경북으로 모여드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민간이 믿고 투자하는 기업 환경, 소상공인이 안심하는 든든한 경제, 개성을 살리는 다채로운 청년 정책,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두터운 복지, 문화로 이끄는 지역균형발전, 덜 힘들고 더 돈 되는 농업,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실현할 정교한 정책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경북도의회가 지방시대를 만들어간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경북'을 만드는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가정과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 1. 1.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윤근수/기자

임말숙 부산시의회의원, 매니페스토 – 의정정책대상 그랑프리 영예

공약이행/의정정책대상 2개 분야 최고상 수상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영등포 아트홀)에서 12월 21일 오후 2시 주최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약이행 분야는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을 대상으로 ▲ 완료도(70점) ▲주민소통(30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의원은 특히 20여 개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행률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임의원은 여의도정책연구원(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난 12월 22일 오후 2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행복 정책을 시행한 우수한 의원을 선발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임의원은 총 30건의 조례 입법 활동, 5분 자유발언 11회, 다수의 결의·질의 활동 등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했고, 높은 선거공약 이행률에서 의정활동 우수성과 혁신적인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임의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연구단체의 대표 의원으로서 매달 '스마트 BOOK모닝' 운영, 각종 교육, 간담회, 연구용역 활동 등 양질의 정보교환 및 토론활동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부산형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균형 있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임말숙 의원은 "국회에서는 국회법을 다루지만, 지방의원은 생활법에 대한 제·개정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한다"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상을 수여했지만,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부산시민들이 상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역현안을 살피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농민수당 도입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해야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대구시의 농민수당에 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관해 서면으로 시정질문하고 대구시는 22일 최종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원규 의원은 2022년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올해 12월 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농민수당에 관한 준비상황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농촌과 농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뿐 아니라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으로 대구시의 농업경영체는 2022년 기준 44,662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위군의 경우 대구시로 편입되기 전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분담해 지급했던 농어민수당을 편입 후에는 군위군 자체부담으로 계속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을 미뤄왔던 타 광역시도 공익직불금과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구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대구지역 농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김의원의 농민수당에 관한 4개의 시정질문에 대해 22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먼저, 대구시가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과 구·군과 어느정도 선까지 분담률 협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는 농가 가구당 60만 원 지급 시 공익직불금 기준으로 약 106억 원,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약 2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체가 많은 달성군, 군위군과 농민수당에 관한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와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 농민단체 및 지자체 간담회를 각 1회 개최했고 대구 편입에 따른 보고회를 2022년과 2023년 사이 4회 실시했다고 답했다.

세 번째로 대구시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검토해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구시는 특·광역시 중 농업경영체수가 44,810호로 가장 많고 농민수당 지급 시 공익직불금과의 중복지원으로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당지급 증액 요구 시 재정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구시는 현재 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농민수당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재정이 호전되면 농민수당

지원기준과 구·군 재정 분담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2024년 신년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상서롭고 길한 청룡의 기운이 깃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밝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미래차 첨단산업 특구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전략적 기업 투자 유치까지 50년 미래 번영과 대한민국 중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위한비옥한 토양을 다져왔습니다.

이 치열한 노력은 지방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앞장서 만들어 왔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튼실하게 열매를 키워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기후 위기와 같이 지구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충격에 전쟁 발발로 인한 여파까지 유례없는 불황과 침체 속에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또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인 모두가 거친 바람에도 돛을 바로 세워 굳건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늘 산업현장을 살피고 힘껏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구 곳곳 골목상권 공동체 모두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연구 하겠습니다.

허례허식보다는 의회의 역할과 본질에 집중했던 기조 또한 지켜갈 것입니다.

대구의 변화와 혁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중남부권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열려 있는 도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도시로 더 크게 비상해 갈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33명 의원 모두는 올 한 해도 전심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룡의 길한 기운이 충만한 한 해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윤근수/기자

[2024년 신년사] 손덕수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영덕군의회 의장 손덕수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고 힘찬 출발을 알리는 2024년 갑진년의 새해가 높이 솟아 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운과 함께 군민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영덕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영덕군의회는 역대 의회 중 가장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66일 간의 회기동안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민생안정과 군민안전 등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19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16건, 5분 자유발언 6회, 건의 및 결의안 2건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05건,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지적사항 82건을 발굴하여 군정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회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 해 동안, 영덕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해에도 국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에 따른 소비부족과 경기침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재난과 농어업의 환경변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선 2024년, 영덕군의회는 위기속에서도 흔들림없는 영덕, 군민이 행복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이 날아오른다는 풍신연등(風迅鳶騰)의 자세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생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방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는 청룡은 가정의 복을 기원하고 재앙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오며, 권력과 힘,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4년 청룡의 기운으로 올 한해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우리군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군민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년(甲辰年)새해 아침
영덕군의회 의장 손덕수

장문화/기자

[2024년 신년사] 최병욱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 속에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로 승천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예천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삶의 터전까지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 왔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9명 의원들이 모두 수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이재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군민들의 슬픔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항구 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협조하는 등 군민들이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군에서는 수해 복구사업과 더불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시책들이 펼쳐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군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견제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쓴소리로 시정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1일 자로 호명면이 읍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명이 읍으로 승격함으로써 우리 군과 신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자부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신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민의를 수렴해 정책으로 연결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하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뜻을 헤아려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애정 어린 충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 한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천군의회 의장 최병욱

정금자/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과 이룬 2023년(중앙부처 25, 경상북도 30, 기타 8개 수상해)

김주수 의성군수,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2023년 성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각종 기반시설을 완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노력하는 의성군, 올 한해 수상 엄지척!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년사 사자성어로'우공이산(遇公移山'을 제시했다. "무엇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2023년을 달려온 의성군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냈다.

▲ 먼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 유입이다.

의성군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2회 인구의 날 유공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차별화된 출산장려, 양육, 청년사업 기반 조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2 귀농인 213가구로 전국 1위에 달성하여 의성군은 3년 연속 귀농 가구수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청년친화헌장대상에서 창업, 일자리, 주거, 문화 예술 등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한 제12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유일하게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형 지역재생 대표모델을 안착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정책대상'을 수상하였다.

▲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이다.

전통적인 농업강군인 의성군은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미래 농업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한 발 더 일찍 준비하였다.

군은 현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곡면 일대 82ha에 자동 관수시설, 무인농기계,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의성마늘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도 3개 마을(의성읍 비봉1리, 금성면대리1리, 단밀면 생송1리)이 선정되었다.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기에 도입하여 추진한 결과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다. 또,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농산물마케팅대상 지자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산지 조직화.마케팅 분야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준 결과였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공동주관한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는 지역먹거리 생산-소비체계 관련하여 노력과 사업 추진 성과를 토대로 '장려상-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을 수상하였으며, 2023년 경상북도 식량시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관광산업과 산림사업 발전이다.

2023년 6월 의성군 전 지역, 지질명소 12개소에 대해 경북 4번째, 전국 15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향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이 목표인만큼 지질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것이다.

산림청 주관한 사유림 선도산림경영단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등급을 받아 2028년까지 10년간 조림 70ha, 숲가꾸기 565ha, 임도 15.5km 등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및 교육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다.

의성군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에서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하였다. 군은 올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사업비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돌봄이 필요한 553명의 대상자에게 4대 핵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공의료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민-민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 운영해 돌봄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웃-마을-읍면'단위의 돌봄체계를 구성해 주민이 직접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돌봄 체계도 마련하여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

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북도가 주관하는 2023년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의성군 보건소는 치매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별 보건진료소 중심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면서 군민에게 효율적이고 다양한 교육 시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수행기관 직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경북도 2023 경로당 행복선생님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의성군 수행기관인 (사)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에서 활동계획 대비 실적, 홍보활동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친환경 정책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다.

의성군은 에너지효율을 통한 에너지절약과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작년도 경북도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에 선정됐으며 고효율 기자재보급 및 공정전환 사업을 추진해 청정에너지 자급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2023년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에너지효율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의성군은 2-23년 한해 중앙부처 25개 수상, 경상북도 30개 수상, 기타 8개분야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상대할만한 큰 성과를 거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 모든 것들이"의성군이 나날이 발전해 거둔 이 모든 큰 결과물은 바로 군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며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2023년 성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각종 기반시설을 완공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금자/기자

이천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4.4억원 확보

이천시는 경기도로부터 2023년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 54.4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9월에 교부받은 26.6억원에 이은 성과로 올해 총 8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현안수요 42.4억원과 재난수요 12억원으로 이뤄졌다. 현안수요로는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12억원 ▲표교2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9억원 ▲신원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7억원 ▲송계리 배수로 정비사업 8.4억원 ▲분수대오거리 교통광장개선 및 경관개선사업 10억원이며, 재난수요로는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 12억원으로 모든 사업은 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 및 생활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김경희 이천시장이 당선 이후 꾸준히 강조해 온 보훈사업 일환이다. 시설 부족으로 9개 보훈단체가 노후된 2곳의 장소에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편 민원 해결과 통합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어 온 사업이다. 통합보훈회관이 완공되면 보훈단체 통합운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회원의 편리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보훈가족들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은 모가면 두미리 경지정리 구간을 연결하는 소교량이 노후되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시급하게 재가설이 필요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총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2024년 신년사 발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4년에도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수원특례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이 민선 8기의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 ▲3대 골목 뉴딜 ▲도시 혁신 ▲세계적 문화수도 조성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은 2588억 원 규모로 결성된 '수원기업새빛펀드',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에 3000억 원 투입, 복합문화공간 '스타필드'에 수원시민 3000명 채용 등이 있다.

'3대 골목뉴딜' 사업은 '수원새빛돌봄' 모든 동(44개)으로 확대,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추진, 손바닥정원 조성이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혁신으로 새로운 수원이 열린다"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세계적 문화 수도' 조성 정책으로는 '수원화성문화제 한 단계 더 도약',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 구축',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 실현' 등을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새해에도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만만치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카톡 채널 친구추가하고 조아용 3D이모티콘 받아용"

1월 5일 오후 2시 25만 명에 무료 배포…더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조아용 선보여

용인특례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이 더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3D 이모티콘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이모티콘을 3D로 제작해 용인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 25만 명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조아용 3D 애니메이션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3D이모티콘을 제작했다.

이 이모티콘은 '조아용이 조아용했다'를 주제로 기존의 조아용을 한층 더 익살스럽고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새해 인사 조아용', '의지에 불탄 헬스용', '방구석 조아용', '눈와서 추워용', '잠수용' '불꽃용' 등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나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모티콘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앱 실행 후 우측 상단 친구검색 창에서 '용인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 친구로 등록하면 된다.

새 이모티콘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배포하며, 배포한 이모티콘은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벤트 시작 전에 채널을 추가한 사람이 25만 명이 넘으면 무작위로 25만명을 선정해 이모티콘을 증정하므로 미리 친구 추가를 하면 받을 확률이 높다.

시가 지난해 7월 진행한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시작 28분 만에 27만 개가 모두 소진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시는 갑진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조아용과 에버랜드의 인기 캐릭터 '레시(레서판다)' 콜라보 상품을 개발해 지난달 26일부터 에버랜드 기프트 샵 6곳에서 판매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아용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할 때마다 시민들로부터 이모티콘을 소장할 수 있도록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며 "시가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것이 정책상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조아용 3D 이모티콘을 새로 제작해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여주시 육군 제55보병사단은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55사단은 연말을 맞아 자체적으로 '사랑의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모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장병들이 직접 참전용사의 가정을 찾아 위문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배 전우들과의 소통을 통해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계획했다. 특히, 단순히 성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전용사를 직접 방문해 마음을 전함으로써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번 모금 운동 간 사단은 총 480만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사단 참모부 및 직할대, 예하 여단.대대 등 총 40개 부대, 45개의 위문단이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55사단은 이번 행사 간 사회복지단체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과 연계하여 성금을 전달하고, 위문품을 지원받아 참전유공자 가정에 전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이관현(중령) 사단 인사참모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선배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지속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2024 신년사] 경기안양시청 최대호 시장 신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저와 안양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갑진년'푸른 용'의 해인 만큼 신년화두를 비룡승운(飛龍乘雲)으로 정해 봤습니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듯, 때를 만나 기운을 얻는다"는 사자성어인데 안양시가 더 크게 도약하고, 시민 모두의 땀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해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지나온 역사를 돌아 보며 시민 화합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고물가의 경제 위기에 맞서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 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을 통해 시민복지 수준도 한 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의 가치를 실현하여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70건의 수상과 109건의 응모채택으로 13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공직자들의 열정으로 이룬 값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와 사회, 산업 등 큰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를 위기로 몰 수도,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명한 비전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현실적인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혁신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우리시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교통혁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안산선을 시작으로 월곶~판교선과 동탄~인덕원선이 착공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GTX-C노선 인덕원역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2028년 모든 노선이 완공되면 모든 길이 안양으로 통하는미래 발전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반 위에 창조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의 거점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능한 청년 인재를 유입시켜 도시에 활력을 찾고 지역경제를 살찌우겠습니다.

인덕원 주변과 안양교도소 부지, 박달스마트시티, 시 청사 부지를 우리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인덕원 주변은 향후 4중 역세권이자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공간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한 공간에서 주거와 직장,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과 박달스마트시티는 대형 사업인 만큼 정부 관계부처와 많은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올해 관계부처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 청사 부지는"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공감하는 첨단기업을 하루빨리 유치해 만안구와 동안구가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올해 안양시는"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도시 안양"으로서 스마트.시민.행복의 가치를 더 공고히 하고 민선7기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더 스마트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시가 스마트 도시를 표방한 이래 2021년 세계스마트기구 정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평가하는 스마트 도시 국제 표준인증을 획득하여 안양시의 스마트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신축하여 전국 최고의 스마트 행정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VR.XR 체험존을 비롯 안전, 교통, 도시정보 등 대시민 정보제공을 확대하며 주차공유 서비스와 안전귀가 서비스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IoT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양시가 기초지자체로서는 전국최초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지구에 선정됨에 따라 8월부터 자율주행 버스가 안양시를 누비게 됩니다. 주.야간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사각지대와 취약시간에 운행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교통을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더 편리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에는 지하 주차장 조성과 함께 경로당을 개축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개관합니다. 이로써 거점별로 6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갖춰지게 되어 청소년의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만안구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고, 수영장과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석수체육관 건립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 건립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안양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됨에 따라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는 6가지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명학공원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보행로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임곡공원 2단계와 충의공원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평촌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계획이며,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 석수역 철재상가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사회복지 예산을 12.28%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고립도가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한파 등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계절에 맞는 성금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복지기반 시설도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장애인 복합문화관과 관양 다목적 복지회관이 문을 열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중 개관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해 상권분석과 마케팅 지원 등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으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에는 상권별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안양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배 인상한 출산 지원금과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청년특별시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 올해 개소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며 지난 해 59억 규모로 추가 결성된 청년창업펀드 2호를 통해 유망한 청년기업들의 더 큰 성장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거문제입니다. 안양시가 올해 대규모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월 평촌 센텀퍼스트 105세대를 시작으로 평촌 엘프라우드에 133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531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안양시가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경제·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도 1인 40만원으로 증액하여 교육에 있어 지역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기후위기 대응의 산실이 될 기후변화 체험교육 센터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민 교육과 홍보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2050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무엇보다 경제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민생경제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움 보다는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은 화합의 힘으로 어떠한 위기도 하나하나 극복해 왔고, 끊임없는 도전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 내 왔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는 늘 따뜻한 손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안양시민의 저력과 따뜻함이 있기에 안양은 늘 희망을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한 시간이 안양의 역사가 되고, 안양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라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안양시장 최 대 호

신우용/기자

시민과 함께 '더 큰 목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8기,
1년 반 만에 공약이행 57.3% 달성
2023년 최고 성과...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2024년 최고 역점사업...
청년 중심 4차산업 육성

민선 8기 화려한 복귀를 알리며,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시정목표로 삼아 첫발을 뗀지 벌써 1년 6개월, 2024 신년을 맞는 박홍률 목포시장은 1897년 개항(開港)이후, 127년이 지난 지금 목포시는 전국 6대도시 3대항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활력이 넘치는 경제, 매력이 가득한 관광, 투명하고 활기찬 행정, 시민이 행복한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시정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임기 1년 반 만에 공약 57.3% 이행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탄탄히 지켜나가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4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박홍률 목포 시장

인터뷰에 앞서 박홍률 시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60년 만에 찾아온 청룡(靑龍)의 해는 어떤 일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돌파하는 지구력과 모험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비롭고 큰 희망과 성취, 그리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용의 해 인만큼 새해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지난 해 우리 목포는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동력을 얻었다"고 강조하면서 2024년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목포 건설 매진에 노력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성과

박 시장은 올해 최고 성과로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꼽으면서 양대 체전 기간 중 항구축제, 문학박람회, 문화재야행 등도 집중개최 해 이 기간 목포를 다녀간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1백만 명가량 증가한 1천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K-디지털플랫폼,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등 신성장 산업을 차질없이 육성하는 한편 차세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 등 수산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 최우수 기초 지자체,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 지방중소도시 종합 1위 등을 성과로 제시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목포노후역사신축사업(490억원) 등 목포시 관련 예산 총 77건 8,060억원 반영, 특별교부세 39억원 등 정부 재정 확보도 큰 성과 였다고 자평했다.

또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부문 평가에서 목포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023년도 1년 동안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 2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 취.창업(147명), 신중년 일자리(139명), 취약계층 일자리(30,105명), 사회적기업 육성(33개사),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2개사) 지원 등 지역내 고용창출 사업에 주력해 왔다.

특히, 신중년의 조기 퇴직과 은퇴 후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중년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매니저, 중소기업 기술나눔 매니저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목포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코로나19 펜더믹 이후 고물가로 지역경제가 침체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낸 한 해였다.

◆ 2023년 목포시 각종 수상 실적

▷청년이 찾는 큰 목포 통해 목포 미래 비전 제시한 박홍률 목포시장 제12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경영부문 대상 수상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물가안정관리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기초 자자체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지방 중소도시 종합 1위를 선정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주관 '2023 건설안전환경대상 지방자치 대상 수상

▷'목포항구축제'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2023년 'SRT 어워드' 대상 수상

▷목포뮤직플레이,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 특별상 수상

▷TV조선 '4차산업 분야 경영'부문 대상 수상

▷2023 로컬콘텐츠페스타 대상 수상

▷2023 에너지효율·친환경대상 산업부장관상 수상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4년 역점사업

박 시장이 제시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은 ▲4차산업 생태계 조성 ▲해상풍력·친환경선박 및 특수조선사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강화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기반 강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의대유치와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 등이다.

4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는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306억원), 강소형 스마트시티조성사업(264억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해상풍력산업이 지정되는 한편,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에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배후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김대중세계평화공원, 삼학아트교, 해변맛길 30리 바다산책로 등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 개최에도 집중한다.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간판사업인 수산식품수출단지(1,150억원) 조성사업을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면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삽진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등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 용역 착수,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대불산단 대교 조성사업, 트램(원도심부터 하당부터 남악부터 오룡) 건설 등도 전남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렴해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의대 유치는 전남도 목포대와 긴밀히 협력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며, 신안군과의 통합은 민간교류를 확대 강화하는 한편 신안 주민의 장례절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로 1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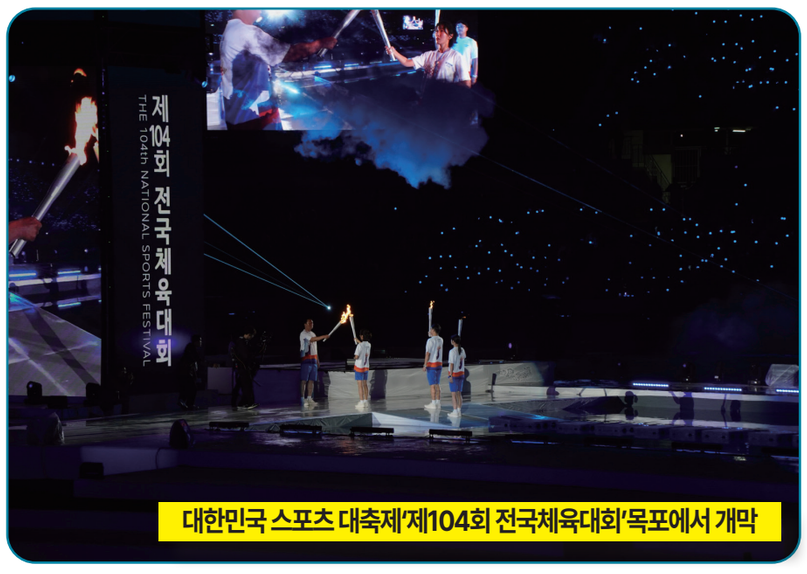
끝으로 박 시장은 "지난 1년간 새로운 변화와 함께 큰 목포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앞으로도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새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맺음말

"시민이 행복한 목포를 만드는 것이 저와 우리 공직자의 바람입니다. 목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시정 전반에 걸쳐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고, 공약 사업도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2024년은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박종배/기자



대한민국 스포츠 대축제'제104회 전국체육대회'목포에서 개막

목포시,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소비 촉진 위해 매진

목포해상W쇼

박홍률 목포시장, 제12회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

목포해상케이블카 야경

박홍률 목포 시장

경북도 24년 신년화두,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

지방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성취하여 새로운 경북시대 만들자
이철우 지사, **"지방이 고르게 발전해야 소득과 자산수준 같은 수치화되고 서열화된 행복이 아닌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국형 행복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해

경상북도는 2024년 신년화두로 "우리가 만드는 기회! 새로운 경북시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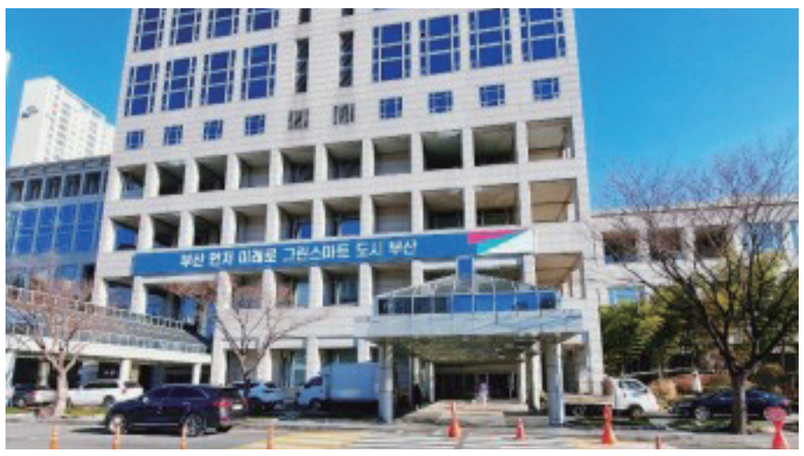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하여 경북을 새롭게 하자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매년 사자성어 대신 우리말로 된 신년화두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은 '호랑이 기상으로 당당한 경상북도'를 지난해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가 화두였다.

이철우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길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의 헌 옷을 벗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고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소득과 자산수준 같은 수치화되고 서열화된 행복이 아닌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선진국형 행복시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연말연시 화재 예방 안전대책 긴급 점검



부산시가 연말연시 화재예방 안전대책 긴급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는 29일 오후 5시,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연말연시 화재사고 예방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지난 29일 10시 40분에 열린 행정안전부 주재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화재사고로 인명 피해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관련 실·국, 구·군별 화재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소방재난본부·디지털경제혁신실에서 각각 연말연시 합동 점검계획, 연말연시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중구·동구·부산진구 등에서 화재취약시설 점검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관계기관에 구·군 부단체장이 책임지고 총괄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합동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화재 대피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상황별 대피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국민행동요령 등 화재관련 홍보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관련 실·국 및 구·군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일간(12.29~1.1)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시설점검 및 분야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하게 보완 조치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했으며, 아울러, 합동점검 대상 외에도 공동주택, 숙박시설, 장애인시설 등도 시설 관리주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화재취약시설인 부산진구 부전시장과 쪽방주거지 현장을 찾아 화재 예방대책 전반에 대한 직접 현장점검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이 동행해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설비 작동 적정성(전원, 감지기 이상 등), 전열기구 등 전기 난방용품 안전성(충전부, 접지 및 누전차단기 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연이는 화재로 시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시는 소방, 구·군과 함께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과 대피계획을 꼼꼼히 살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우뚝 일어서다!

광역시권 8개 신청 도시 중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지정
1년간 예비사업 후 최종 지정, 최종 지정도시에 최대 200억 원 지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문화가 지역을 변화 ·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밝혀

대구광역시는 수성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문화특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특구는 지방시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해 3년간('25~'27) 최대 200억 원(국비 보조비율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공모 신청한 전국 7개 권역 4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6개 권역 총 13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다고 29일(금) 발표했다.

이번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8개 기초지자체가 경합한 광역시권에는 대구 수성구와 부산 수영구가 선정됐다.

수성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허브와 공예생태계'를 조성해 수도권과는 차별화한 콘텐츠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모델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수성구 문화특구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인 '공예 중심 제작 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경제도시' 조성과 연계해 대구미술관, 대구간송미술관 등 지역의 우수한 문화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 역량을 촘촘하게 네트워킹해 도시 전체를 글로벌 시각예술도시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화가 지역을 변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역량을 더욱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중앙선 KTX, 안동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시작

지난 29일부터 서울역까지 하루 왕복 4회 운행
권기창 안동시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안동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 방문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가까워진 서울과 교류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계기 되길"**

지난 29일 05시 58분, 안동발 서울역행 중앙선 KTX-이음이 여명을 뚫고 첫 운행을 시작했다.

안동을 출발해 기존 종착지인 청량리역을 지나 서울 중심부인 서울역까지 별도의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연장운행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통식을 개최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코레일 정정래 부사장을 비롯하여 중앙선을 통과하는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하 세레머니, 기념사, 기념촬영, 출무신고 등을 진행했다.

특히, 권기창 안동시장은 서울역행 첫 열차를 타고 개통식 행사에 참여 후 안동행 첫 열차를 타고 복귀했다. 안동역에서도 편리한 열차운행을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 속에 축하 꽃다발 전달식, 소원트리 달기 행사가 열렸다.

이번 `중앙선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은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로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권 지자체의 문화와 관광 및 경제 등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마음의 거리도 더욱 가까워졌다"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을 찾는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한층 가까워진 서울과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연장운행과 함께 중앙선 KTX-이음 운행 횟수가 늘어났다. 기존 주중 14회(상.하행 각 7회), 주말 16회(상.하행 각 8회)에서 하루 2회(상.하행 각 1회)를 증회하여, 주중 16회(상.하행 각 8회), 주말 18회(상.하행 각 9회)로 증편 운행하며, 이중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매일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한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확정!!

개군(開郡) 이래 역대 최대규모(2조원 규모) 국책사업 유치 결실 맺어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2일(화),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 대상 후보지로 영양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예비 후보지로 경북은 영양군(1GW), 봉화군(0.5GW), 전남 곡성군(0.5GW), 충남 금산군(0.5GW)을, 우선 후보지로 경남 합천군(0.9GW), 전남 구례군(0.5GW)을 선정했으며, 6개 지자체 모두 사업자에 선정되어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영양 양수발전소는 국내 최대규모(원전 1개소)인 1GW로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약 2.1조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상.하부 저수지 및 발전설비, 이주단지가 조성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에 신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파급효과와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개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서는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정규일자리(150여명) 창출, 지역발전 지원금(936억원)을 활용한 주민복리사업 재투자, 순수 1.5조원 규모의 건설비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매년 14억원의 장기세원 확보, 양수발전소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시설 개발로 신규 관광명소 확보(매년 10만명 이상 방문객)를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최종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 최대규모인 최적의 입지 조건과 최고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산자부의 객관적 평가 결과라 보고 있다.

특히 민간 주도의 '범군민 유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전방위 유치 홍보활동 전개로 차별화된 유치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참여율 87.47%)과 주민여론조사(찬성률 96.9%)를 통해 압도적인 유치 지지를 보여주었다.

군에서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비롯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며, 특히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새로운 영양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신 정부 및 경북도 관계자, 박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민관이 똘똘 뭉쳐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영양군민들, 특히 일월면 용화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2024년에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공적인 양수발전소 건설에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청송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는 주민들이 공공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공공개방자원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번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로 분류하여(광역시도·시·군·구)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활성화 노력 및 성과 전반을 평가했다.

청송군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등록자원 및 담당자 현행화율 100%를 달성했고,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기차충전소, 주차장 등 중점자원을 다수 발굴하고 정비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남관 미디어아트홀 개관 및 오픈키친 공간을 조성하는 등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평소 문화예술생활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높게 평가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공공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종실용 대마(헴프) 안정생산 재배 매뉴얼 발간

종실용 대마 파종부터 수확까지 꼭 필요한 기술 모아 총정리
대마 종자의 우수한 기능성으로 노지 재배 면적 큰 폭 증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는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종실용 대마(헴프)의 안정적인 재배와 종자 생산을 위한 기술 정립을 위해 대마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재배 기술을 총망라한『종실용 대마 재배 매뉴얼』책자를 발간했다.

대마 종자에는 오메가-3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기능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우울증, 암, 각종 염증성 질환 등에 효능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대마 종자의 기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대마 종자 생산을 위한 노지 재배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2ha에 불과하던 재배 면적이 2023년엔 123ha로 급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마 재배 기술 연구는 섬유용 재배에 국한되어 있어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생물자원연구소는 다수확 재배 파종 적기 구명 등 그동안의 우수 연구 결과와 각종 자료를 정리해 종실용 대마 재배 기술, 자성종자 생산기술, 종실용 대마 재배자 허가취득 방법 등 종실용 대마 재배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배 매뉴얼 책자로 발간했다.

매뉴얼은 112쪽 분량의 책자로 대마 재배 농가와 관련 기관에 배부돼 대마 재배의 든든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본 매뉴얼 책자는 종실용 대마 종자 생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개발로 재배 매뉴얼을 세밀히 보완해 종실용 대마의 안정생산 재배 기술 정립과 보급에 크게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2023년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 '우수' 수상

2년 연속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등 혜택부여
김학동 예천군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재난에 강한 안전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3년도 도민안전시책 시군평가'에서 2년('22년, '23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민안전시책평가는 안전과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각종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로 3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평가 항목은 ▲안전정책 분야에 안전경북 실현 및 비상·재난 대비 능력 강화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추진실적 ▲사회재난 예방 분야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생활안전 관리 실적 ▲자연 재난 대응력 강화 분야에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태풍·호우 및 대설·한파 자연 재난 대비 추진 실적 등이다.

예천군은 이번 평가에서 항목 전반에 걸쳐 좋은 성적을 얻으면서 우수한 안전 역량을 증명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안전 예천을 위해 노력해 준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재난에 강한 안전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신한울1호기 터빈정지돼

한울원자력본부, 터빈 정지 원인 파악중이며, 이후 조치 취할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는 "1월 2일 10시 42분경 신한울1호기(140만kW급) 터빈이 자동 정지됐다"라고 밝혔다.

신한울1호기는 현재 원자로 출력 4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터빈이 정지된 원인은 현재 확인하는 중이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상주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2등급'

민선 8기 출범 이후 청렴도 상승세 지속,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
강영석 시장,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 신뢰로 얻은 결과로 신뢰와 응원에 감사하며,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한 상주 만들기에 지속 노력"

상주시는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작년 4등급 대비 두 계단 상승한 결과로, 최근 10년간 발표된 종합청렴도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이는 청렴에 대한 시민들과 공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된다.

시는 올해 초 공보감사실 감사팀을 감사1팀과 감사2팀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렴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청렴 업앤라이트(Up&Right) 협의회 개최, ▲찾아가는 청렴·감사 컨설팅, ▲보조금 감사, ▲청렴·감사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등 기존 청렴 시책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에 감사드리고, 올해의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2024 신년사] 영주시장 박남서 신년사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용맹함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와 예상치 못한 폭우피해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으로 위기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장애물은 도약의 발판이 되어 영주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함께하며, 영주시정에 큰 힘을 실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 영주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주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영주댐 준공을 동시에 이뤄내면서, 지역의 경제와 관광산업 성장의 천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백산 국립공원의 영주시 구역 1.705㎢가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 해결되었으며,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쉼없이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K스페셜티의 과감한 투자결정에 힘입어 영주시 역대 최대 규모인 5,000억 원의 신규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경계지역 시민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와 「경계 지역 지방상수도 상호 용수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북 지역경제활성화 시군 평가 '최우수', 경북 농식품 수출정책 평가 '우수' 등의 영광을 안으며 영주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 국가 암 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도시재창조 한마당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만 영주시민 여러분과 영주시 공직자가 함께 땀 흘려 이룬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

2024년 역시 녹록치 않은 현실이 우리 안팎을 에워싸고 있지만,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 시민이 체감하는 획기적인 변화와 도약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올해 영주시는 '본예산 1조원' 시대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소중한 예산이 영주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성공은 시도하기로 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도 영주시는 도전을 멈추지 않고, 영주 발전과 1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세계로 도약하는 첨단 미래 산업도시 기반을 견고히 다져 지속가능한 자족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인재가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성공적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 유망기업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베어링 제품의 설계부터 성능평가, 제품화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전(全)주기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기업의 입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투자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재·부품산업 도시로 우뚝서기 위한 도시기반을 견고히 다져 역동적인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소비자 중심, 기술 중심, 환경중심의 혁신 농업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 제도와 외국인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깊어지는 농민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비롯한 농업보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경영 안정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수요가 높은 최첨단 신기종 농기계를 추가 도입하여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특산물 유통시장에 대응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시의 우수 농·특산물이 세계로 널리 뻗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꾸준히 개척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최종 준공 승인된 영주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 문화, 휴양, 스포츠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소백산에 산악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숙박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간인 서천을 중심으로 한 새롭고 다양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가 있는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천 인근에 위치한 구학공원에는 트리탑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여 계절별로 달라지는 서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부석사 박물관 환경 개선, 무섬마을 종합정비, 금성대군신단 주변정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문화재적 가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이음 개통에 이어 지난 연말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영주까지 거리가 더욱 좁혀져 지역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전통문화 유산 등 영주의 지역적 특성과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도시, 체류형 문화도시 영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적의 정주 여건, 편리한 교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 등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주택정책 로드맵에 따른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과 체육시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영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이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존중해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생활 속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감과 편리함을 더하겠습니다.

먼저,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체계 구축,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아이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예술체험 교육 등 지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해 '아동친화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맞춤형 돌봄서비스, 노인교실 운영을 통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보장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없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생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옥계, 석관지구 하천정비 등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제, 안심식당 지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정수처리 시설을 개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시민 생활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각종 전염병 차단을 위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으로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중심의 열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요구에 끝까지 응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민원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읍면동 민생탐방, 시민 의견 청취 창구와 시정 모니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여러분!

흔히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전과 혁신의 발자취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 영주발전을 향한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정신으로, 올 한해 굳은 의지와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갖고 영주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영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영주시민 모두의 앞길에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甲辰年 새해 아침
영주시장 박 남 서

정금자/기자

[2024 신년사] 경북도지사 이철우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 하는 마음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하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벌써 두 발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공은 변화에 대비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온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올해, 경북도정은 동해바다에서 시작해 온 세상을 밝히는 태양처럼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기회를 만드는 도민여러분들께 빛이 되어 드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경북의 전환점이 될 만한 다양한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포항과 구미에만 머물러 있던 경북의 성장판을 축구장 800개에 달하는 신규국가산단을 유치하여 북부지역의 영주, 안동은 물론, 동해안의 울진, 경주까지 확장시키는 일을 하였고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는 배터리와 반도체를 더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변모시켰으며, 투자유치도 사상 최대인 14조 2천억과 역대 최대인 11조 5,016억원의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교육혁신과 인재양성도 지속해 고등교육혁신시범지역으로서 우리가 만든 정책브랜드인 K-U시티가 플랫폼이 되어 대학이 없던 의성, 봉화 그리고 울릉까지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소멸극복의 대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글로컬대학에 2개소 3개대학이 선정되어 전국 최다선정이라는 수확까지 거두었습니다.

농업대전환도 디지털혁신농업타운과 들녘특구에서 2배가 넘는 소득증가를 이룩하여 우리가 해외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신으로 시작한 도전과 실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10년의 노력 끝에 고령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과 팔공산국립공원도 선물로 안겨드린 한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 도전하고 또 도전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기회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마을마다 근면의 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포항제철과 구미의 국가산단으로 대한민국 근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었듯이

지금을 사는 우리도 경북이 가진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를 위해 창조적인 혁신과 아이디어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해바다와 낙동강 그리고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산들을 가졌고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과 같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인프라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까지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청룡의 기상으로 도약할 시점이 바로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지난 5년간 변화와 도전을 외쳐가며 노력한 결과 경북도정의 역량도 높아졌고, 높아진 역량만큼 도민여러분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정부와 세계의 도시들도 차별화된 매력을 더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감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전에 없던 세상을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길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의 헌옷을 벗고, 지방정부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기회를 창출하고 성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 과감한 도전으로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경북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북시대'의 길을 나서겠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며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키워 지역사회에 창의의 기운을 충만하게 하고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투자되고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할 때 바로 지역이 살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 가장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로 전환해 재정사업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조 5,016억원의 국가투자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 동안 도로.철도 외에 대부분의 재정투자들이 산발적 소규모 투자에 머물러 지역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은 민간이 시장을 만들고 제공해야 지역에 활력이 생긴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재정사업의 대상이 아니었고, 재정으로 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많은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에 민간금융기법을 접목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 활력사업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호텔.리조트를 포함한 관광단지! 유통과 물류가 복합된 물류센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쓸 임대형 오피스텔!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병원까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 모두들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동안 망설였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현시켜 기업들에게 경북이 기회의 땅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출범시켜 부족한 수익성은 공공이 마중물로 채우고, 민간이 걱정하는 투자위험은 다양한 주체들이 나누어 부담하며 경영은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기업에게 맡겨 지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북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로 규제혁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두 번째로는 인재양성과 교육혁신을 지속하고 개방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 경북이 글로컬 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식량원조로 굶주림을 해결하던 나라, 기술도 자본도 없어 가발이나 신발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반도체 강국, 철강강국, 배터리 글로벌 강자로 만든 원동력은 단연코'교육'이고 '인재'였습니다.

지금의 지방을 살리는 힘도 '교육'과 '인재'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온 대학진흥권한을 활용해 배터리와 반도체 그리고 원자력과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 산업의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게 공급하고,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유치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글로벌 학당'과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며, 선진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U시티 사업도 각 시군마다 연구기반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정주환경까지 패키지로 묶어 우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머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문화특구로 대표되는 4대특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추진단을 출범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과 대학을 참여시켜 확실한 투자결정을 미리 확보한 특구를 만들어 국가적인 시범모델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가 많아지고 교육혁신으로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진다면, 기업과 자본은 경북을 자연스럽게 찾을 것이고, 일자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살만한 곳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기회'는 민생이 안정되고 도민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민생과 안전은 언제나 도정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력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으로 지역내 생산활동과 소비가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조직과 봉사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하여 안전행정실을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상황관리는 현장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산림안전 대진단'을 통해 여름이 오기 전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산사태 방호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을 신축해, 우선대피장소로 지정하고, 마을의 이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시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산불상황실에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대응지휘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도 활력넘치는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타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데려다주는 새로운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도민들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정된 노선.정류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능동형 대중교통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현재 4개 시군에 도입되어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수요응답형 버스를 최대 10개 시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청신도시에 운행중인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경북혁신도시 등으로 확산하고

70세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이용도 확대해 경북 어디에 살든 확실한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가격, 소득과 자산수준으로 결정되는 돈으로 평가되는 '서열화된 후진국형 행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일찍 결혼하고 아이낳아 기르며 다양한 가치와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존중받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선진국형 행복'이 인정받고 꽃피는 나라입니다.

선진국형 행복은 수도권 집중속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방식을 모방하고 숫자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다양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때 선진국형 행복은 가능한 이야기라 확신합니다.

이제 선진국형 행복이 우리 경북에서 시작되어 꽃피도록 본보기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북시대'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북도청 공직자들은 산업화 50년을 이끈 경북인들의 자부심을 자신감으로 새기며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정책들을 준비해 지역의 주인인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본보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생명과 도약을 상징하는 청룡(**青龍**)의 기상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도전과 변화의 의지로 성공하고 행복할 기회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2024년으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윤근수/기자

지구도 지키고, 혜택도 받고!

통영시, 에너지 절감 혜택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통영시는 올 한 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에 참여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한 4,336세대에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4,814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분야)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과 상업시설, 학교 등의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연간 2회(6월, 12월경)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현금, 현금 기부, 그린카드 포인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통영시는 각종 축제·행사에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신규가입 이벤트 실시하는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입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통영시 소속 전직원에 대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을 추진했다.

또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해 올해 주행거리를 줄이고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기여한 58명에 406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통영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연간 1,239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 이는 작년 감축량인 1,071톤보다 16% 증가한 수치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분야는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https://cpoint.or.kr/)" 또는 통영시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분야는 한국환경공단의 별도 공고에 따라 매년 2~3월경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미래 100년의 탄소중립도시 통영을 만들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동래구 신청사 설치 미술작품 공모

부산 동래구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동래구 신청사에 설치할 4점의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동래구는 「문화예술진흥법」및「부산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하며, 2024년 1월 29일부터 30일 17시까지 2일간 작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사에 설치할 4개의 미술작품(회화)을 대상으로 하며, 건물 내부에 4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미술작품 설치가 가능한 국내 19세 이상 모든 작가들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들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여 공모지침서 내 서식을 활용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중 동래구 문화관광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모든 미술작품은 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으로, 당선된 최종 4개 작품의 작가들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되어 동래구민들에게 품격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2024 신년인사] 울진군수 손병복 신년인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망했던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저물고,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날 힘들었던 기억은 떨쳐버리고, 2024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울진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선정을 비롯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1년을 앞당겨

이끌었으며, ▶'제61회 경북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등 대형 국·

도립 기관 유치, ▶역대 최대규모인 45건 공모사업에 사업비 3,428억 원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룬 과정 속에는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속에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획액 대비 500억 원 정도 감소하여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정부는 지방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며 지방 주권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책임도 함께 부여되면서,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지역의 잠재력을 찾아 새로운 성장동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사전에 결정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여, 이미 큰 틀을 준비하였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 원전과 수소를 중심으 로 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였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마련,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한 농·어업 대전환 추진 등 울진의 백년대계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2024년은 이러한 방향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기면서, 군민을 섬기며, 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일에 시간을 쏟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 실용적인 경제, ▲ 차별화된 관광, ▲ 감동주는 복지, ▲ 섬기는 군정 달성을 위한 2024년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최종 후보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얻은 기회를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간다면, 울진군을 산업화 도시로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의 수소 산업을 울진군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국가산단과 수소 산업 정착을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산단의 조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해 많은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수요를 확보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동시에 본격적인 국가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원자력·

수소 공급시설 구축을 위한 10MW급 저온수전해 방식의 수소생산 플랜트를 조성하고, ▶원전 전력을 국가산단에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에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대규모 민간투자와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33년까지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도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 ▶교통환경 저감 대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겠습니다. ▶더불어, 편입토지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 사업들의 순조로운 추진과 울진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 연결과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울진 관광 1,0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관광객이 오래 머물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의 가장 기본인 사계절 오션리조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도시민들이 울진의 숲속 마을과 바다마을에서 잠시 살아볼 수 있는 특화된 머무는 공간을 조성하고, ▶경상북도 경관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포 등 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 일원에 특색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다양한 체험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차별화된 명품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왕피천 유역과 백암 치유의 숲은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운영계획을 준비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고, 전 구간 운영을 통해 울진군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에 발맞춰 구산해수욕장과 월송정 송림길 구간에 맨발 걷기 코스를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맨발 걷기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유산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평해 남대천 단오제를 울진군 대표 문화축제로 육성하고,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울진금강송 혼농임업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운동하기 적합한 자연환경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 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울진 실내체육관은 스포츠 관광도시 울진의 위상에 맞는 최상급의 체육관으로 조성하고, ▶또 급증하는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보강하고,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동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른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122억 원이 증가한 1,3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이 인상되고,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추가 지원하며, ▶교육급여는 11%를 인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부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조리사 인건비와 기능보강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는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청소년들에게 권역별 문화 충족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어르신들 누구나 동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한 끼라도 같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경로식당 시험운영 및 경로당 밑반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생 및 청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액을 확대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어르신 무료 빨래방을 북부권역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혼자하기 힘든 대형 세탁물을 청결하게 세탁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재활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시설개선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울진바지게시장은 다양한 체험거리와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여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죽변, 후포시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역량과 울진의 풍부한 특산물을 결합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틀을 바꾸는 농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는 착공에 앞서 지역 실정에 부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과 혁신 농업타운 조성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변화에 대응한 대형 저온저장고와 저온 선별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촌생활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물류 대혁신을 통해 울진 어업의 대전환도 함께 추진 하겠습니다.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하여 죽변항을 다목적 어항으로 탈바꿈시키고,

▶후포항은 해양수산 복합공간 개장에 맞춰 기존 수산물 유통센터 부지에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등기산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울진만의 관광형 수산 시장으로 발전 시겠습니다. ▶또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양정항, 죽진항, 동정항이 추가로 선정되도록 준비하고, ▶신선 수산물 유통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죽변항에는 해수 공급시설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과 육상양식업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기반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음나무, 초피나무 등 특용 임산물을 새롭게 개발하여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임산물의 생산·개발·유통을 연계한 백암 임산물 클러스터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대전환프로젝트 일환인 국립 산지생태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경북 119 산불특수대응단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가야 할 시대적 흐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수소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원전 지원금 등으로 170kW 14,510원을 지원하던 전기요금을 200kW 17,690원으로 확대하고, ▶울진읍, 후포면에 도시가스 추가보급과 함께, 북면, 죽변면에도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재생과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발사업은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포면 도시재생사업은 2026년까지 1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된 도심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울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근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소재지와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가겠습니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산포 배수펌프장 비상 발전기 설치 및 지방하천과 읍·면 소하천에 대한 일제 준설을 추진하여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연안재해방지시설 확충 등 생활권 내 재해 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후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섬김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하여 일하는 방식과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업무들의 전산화, 표준화, 그리고 유사·중복 업무의 통폐합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주기적 조직 문화 진단과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체계 연동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 습니다. ▶더불어,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일잘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과의 소통창구인 '군민 섬김데이'와 '군수 직통 문자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애로사항에 대해 신속한 업무처리로 처리율을 높이고,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 및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 만족도 조사 등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문화를 실천하여 군민들에게 감동주는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더 나아가, 울진군 전체로 전파하여 작은 변화를 통해 서로 화합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 추진해 나갈 군정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울진군은 이제 군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함께 잘 살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가슴 벅찬 미래 울진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 된 힘과 열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울진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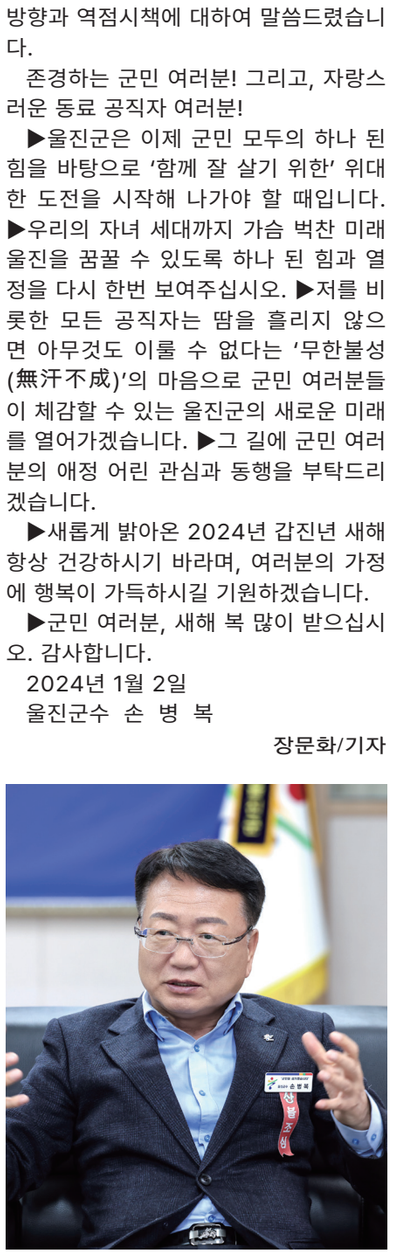
▶새롭게 밝아온 2024년 갑진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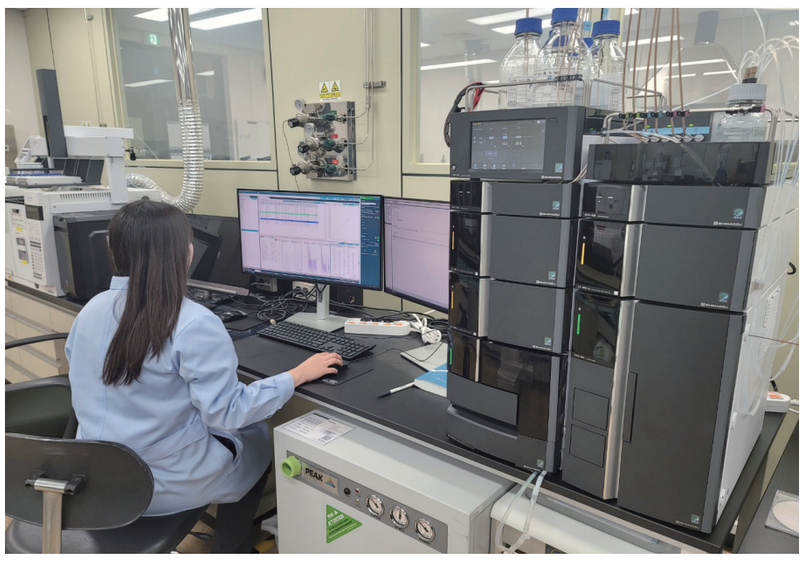
울진군수 손 병 복

장문화/기자



경북도, 정수시설 조류독소 불검출로 확인

9개 시군 17개 정수장에서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6종 감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조류독소 감시 강화 사업 결과, 도내 정수장에서 조류독소는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절기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남조류 대량 번식이 주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먹는물 안전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시설용량 10,000톤/일인 정수장으로 포항·구미 등(9개 시군) 1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시스틴 6종(-LR,-RR,-YR,-LA,-LF,-LY)을 매월 1회 분석하였다.

특히, 올해 8월 영천호에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23.8.17.)되어 연구원은 영천호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정수장의 상수원수와 정수을 도모하겠습니다. ▶월변지구 도시개에 대해 조류경보가 해지될 때까지 조류독소를 분석하였다.

조류경보제의 경우 조류독소는 권고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경계' 단계 이상 시 필수항목으로 분석하지만, 연구원은 안전한 먹는물 확보를 위해 관심 단계에서 해지 시까지 신속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였다.

이화성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수자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시스틴 이외 아나톡신-a, 삭시톡신, 노둘라린, 실린드로스퍼몹신과 같은 조류독소 물질과 항생제 종류의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시장 재건축 첫 삽...명품시장 재도약 초읽기

현대식 점포와 주차장 등 두루 갖춘 지역 랜드마크 기대

김광열 군수,"군의 모든 행정적 역량과 군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영덕시장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혀

영덕군이 2년 전 화재로 소실된 영덕시장의 재건축 착공식을 지난 28일 개최하며 명품시장으로서의 재도약을 공식화했다.

영덕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4일 새벽 80개소의 상가와 시장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대형 화재의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영덕군은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임시시장을 마련해 상인들의 생계활동을 지원하고 발 빠르게 재건축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3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영덕시장을 방문하고 재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한 바 있다.

이후 영덕시장은 재건축의 정밀조사와 설계 작업, 그리고 철거 단계를 거쳐 이날 명품시장으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재건축될 영덕시장 12,448㎡ 대지에 시장건물 연 면적 5,769㎡에 2층 규모로, 1층엔 가변, 확장 가능한 모듈형 매장에 54~60개소 점포가 들어서게 되며, 2층엔 식당가와 키즈카페, 동아리실 등이 갖춰진 활력센터가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연 면적 4,168㎡에 3단 규모로 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살린 현대식 쇼핑몰의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달희 경제부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 그리고 영덕시장 상인회 회원과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영덕시장 재건축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착공식은 영덕시장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명품시장으로 거듭나는 출발선"이라며, "영덕군의 모든 행정적 역량과 군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다시 일어서는 영덕시장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영덕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총력 대응

포항, 영천에서도 바이러스 검출 이어져 / 양돈농가 및 거점소독시설 일제점검 등 차단방역 점검

경상북도는 최근 포항시 및 영천시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됨에 따라 양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시 화남면에서 수렵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에도 화남면과 자양면에서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지역 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지난해 2월 상주시에서 검출된 이후 포항(10월 31일), 영천(12월 22일) 등 총 12개 시군에서 464건이 확인되었으나, 지금까지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멧돼지에서 양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29일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야생멧돼지를 관리하는 환경 부서에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및 폐사체 발생 시 신속한 검사의뢰, 포획 인력 및 시료 취급 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준수, 가축방역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북도는 연말 연휴 기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동물방역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21개 시군 25개 거점소독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양돈농가 방역시설 및 소독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한돈협회를 통한 차단방역 수칙 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인 남하와 겨울철 야생멧돼지 번식기에 따른 활동 증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 소독,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임종득 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 출판기념회 개최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음달 4일(목) 오후2시 서울 공군 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출간하는 '원칙너머'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21년 9월 25일에 펴낸'약함 너머'의 후속작으로 지난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세웠던 원칙을 기록한 내용이자 영주 미래 전략론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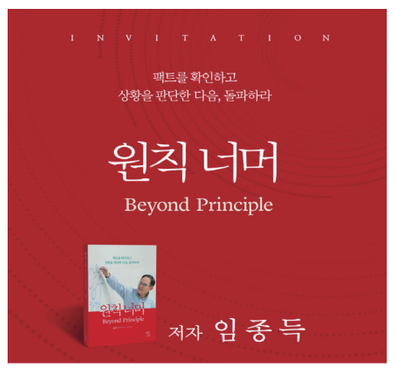
그는 저서를 통해 방산 수출 산업, 사이버 안보 정책, 영주의 스토리텔링, 영주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저자의 개인사 등에 대한 스토리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외에도 국방비서관 이후 비하인드 스토리, 정치를 하려는 이유, 고향 조우골에 관한 내용 등 내밀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8년 동안의 성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 그에 따른 기획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현재 영주와 봉화·영양 등에 넓게 퍼져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한데 묶어 미래가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에서 새해 2024년 1월 4일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경북 영주시 그랜드컨벤션 5층에서도 열릴 계획이며, 임 전 차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봉합 정신'과 '우라 자역구의 미래'를 외치며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민을 항상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면서 22대 총선 출마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4 신년인사] 경주시장 주낙영 2024년 甲辰年 새해를 맞이하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아보아 지난 한 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치솟는 고금리, 고물가의 경제한파로 힘겨웠던 나날이었습니다.

올해 갑진년 새해는 육십간지 중 41번째로 '갑'은 청색을, '진'은 용을 뜻하는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힘찬 기백으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잘 풀리고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아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 해지고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생활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시민의 안녕과 경주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결과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첨단과학 산업은 미래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입니다.

경주시는 원자력산업과 미래 자동차 분야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에 이어 SMR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래 에너지산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수로 해체기술원을 착공하여 블루오션인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준공으로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혁신 생태계도 탄탄하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은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에 좌우됩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상생협력기금 융자 지원 등으로 운영 안정을 도모하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공영주차장 준공 그리고 도심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위상은 견고합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널리 알리고, 새로운 관광과 스포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에어돔 축구훈련장은 새로운 스포츠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 신라문화제, 신라달빛기행 등 경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 및 숭문대 개관으로 신라의 정체성을 더 높이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관광기업 지원센터 운영,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 조성과 대릉원 무료개방으로 新관광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특히 2023년 우리나라 관광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한국 관광의 별'에 대릉원, 동궁과월지가 선정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농어촌은 생명의 터전이자 천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농업혁신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해양관광 청사진을 그려

냈습니다.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사업인 농촌협약 선정과 신농업 기술 보급, ICT 기반의 스마트축산 사업 추진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의 어촌환경 개선과 초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선정으로 새로운 명품 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시민의 행복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모든 계층, 모든 시민이 행복한 경주! 낮과 밤, 사계절이 더불어 아름다운

경주! 대외적으로 인증 받은 탄탄한 행정력의 경주!

임신과 출산 지원부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학교 급식 지원센터 준공, 청년 희망경제프로그램, 어르신 행복·무료택시 운영 개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가족행복 정책을 살뜰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황금대교 조기 건설, 숲머리마을 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한편,

서라벌 황금정원 나들이, 신라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대릉원 미디어아트 등으로 낮과 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뷰티풀 경주'로 빛냈습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평가 2년 연속 1등급, 행정안전부 다산목민대상 수상 등 외부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 경제전망은 점진적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도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혼신의 힘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유구한 세계문화유산에 가치를 더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등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4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관광의 별 도시 선정의 명예를 바탕으로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최대 역점과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모든 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아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우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라역사관 건립, 역사와 전통에 디지털을 더하는 천년신라왕경 글로벌 디지털 복원으로 신라의 역사적 가치를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제2동궁원, 예술창작소 건립과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짚라인 조성 등으로 현대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하며,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과 경주읍성 2단계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둘째, 미래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에 혼신의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e-모빌리티 연구단지 개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유틸리티 기반구축 사업 등 미래를 주도할 첨단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SMR 국가산업단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통해 최적의 미래 에너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경제를 부활시키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확대 추진,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으로 청년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천 경제자유구역과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조성으로 투자를 선도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미래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더 젊고 더 과학적으로 농축수산업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과 맞춤형 사업 지원 등 청년농업인을 착실히 육성하며,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간 정비로 살기 좋은 농촌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과학을 접목한 신농업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제과제빵 상품과 경주를 대표하는 명품특산주를 개발해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축산물 직판장 건립, 경주형 사료작물 개발, 축분 고체연료 에너지전환 추진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주를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관광 명소로 확실히 각인시키고, 감포항 명품 어촌 테마마을 조성과 감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양남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과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으로 활기 넘치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녹색도시 경주! 쾌적하고 안전한 경주! 의 기본은 한결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로 형산강을 생명과 문화의 강으로 재탄생시키고, 황성공원 그랜드플랜 추진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공원과 숲과 녹색길이 이어지는 자연친화적인 정원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통합관제센터 건립으로 생활환경민원에 신속대응하고, 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관리, 가로등·보안등 설치 등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심 및 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 태풍 힌남노와 카눈 피해 복구 마무리, 노후 된 교량 개체와 지하차도 구조개선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한편,

황금대교와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완전 개통, 주요 도로망의 조기 준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경주역사 등 폐철도 및 폐역부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지매입과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항상 시민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소통하며 온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 및 지역돌봄협의체 확대 운영으로 질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환경개선, 청소년 비타민 프로젝트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알차게 실행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과 소리를 담은 주거, 취·창업, 생활환경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와 경주의 특성을 반영한 학과 확대로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하나가 되어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특히 경주청년센터와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를 운영하여 역량 있는 청년을 육성하고, 경주형 희망무지개 청년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청년들이 모여들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로당 이용활성화와 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행복추구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충효·남경주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베이스볼파크 3구장 조성과 파크골프장 확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동물사랑 문화센터 신축으로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 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복합힐링센터, 외동읍 종합복지회관, 북경주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으로 세대와 장애.비장애를 아우르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선진 복지행정을 실현하고, 신라 정원을 재현한 최첨단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으로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자연이 융합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소통행정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마음을 읽으며,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경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전망으로 헤쳐 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와 미래를 위한 확고한 비전 그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현재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서로 뜻과 힘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의 정신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큰 걸음으로 더 크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700여 명의 우리 경주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하여, 더욱 더 힘차게,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룡이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의 기세를 품고 갑진년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甲辰年 새해 아침

경주시장 주 낙 영

윤타용/기자

영양군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농기계임대료 50%감면」 2024년 상하반기 연장 실시

영양군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 지역 경제침체로 어려움 겪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2024년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작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천6백만 원 중 1억4천8백만 원의 혜택을 보았고 다가오는 '24년에도 50%감면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0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하여 2024년 한해동안 연장해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입암면 교리 김모씨(45세)는 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2월 27일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였는데 1년간 임대료를 50% 감면을 연장해 주어 힘든 시기에 농가에 큰 보탬이 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지방 소멸 극복 원년…미래 100년 준비"

시무식, '상선약수' 화두로 전남 행복시대 힘찬 새출발 다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갑진년 새해를 '함께 사는 대동정신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 100년을 더욱 힘차게 만들어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노자의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새해 첫 화두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룡의 해,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청룡이 승천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 있어야 하듯 '상선약수'를 교훈 삼아 물처럼 몸을 낮추고 인화단결해 힘찬 새출발을 하자는 의미다.

이어 "지난 한 해 도민들께서 도전과 용기, 불굴의 '전라도 정신'으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줘 전남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빛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체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김대중 평화회의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선정, 21조 6천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순천대학교의 글로컬대학 선정, 43만 명을 돌파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2024년 도 예산 12조 2천억 원과 역대 최다인 국고예산 9조 700억 원 달성 등도 큰 결실이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이자 빛나는 지방시대 1번지,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남형 만원주택 신축 공급을 추진한다. 또 최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세풍산단 공영개발과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5천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세계 속 남해안 관광·문화벨트 구축을 위해 1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2025 목포세계미식산업박람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에도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빅데이터·스마트화로 혁신하도록 인공지능(AI) 첨단농생명 밸리, 청년 임대형 스마트 단지, 김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발전의 새 기폭제가 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인 광주~영암 아우토반, 광주~나주 광역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경전선,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에도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 지정과 농·수협 중앙회 공공기관 유치에도 각고의 노력을 다해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우뚝 선다는 목표다. 한층 따뜻한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6만 4천 개로 대폭 늘리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소상공인자금 이자지원율 상향 등을 추진하고,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인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은 국비가 전액 삭감됐지만 도비로 계속 지원한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인권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다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다"며 "그 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어받아, '먼저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중무장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시무식에 앞서 도청 실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목포 현충탑과 무안 김대중 동상을 찾아 참배했다.

박종배/기자

나주시, '교육발전특구에 바란다' 10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민선 8기 명품 교육도시 조성 핵심 사업 행정력 집중

전라남도 나주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나주시는 오는 교육발전특구 시민 아이디어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에서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계다.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대상으로 24시간 돌봄부터 일반고 혁신, 대학혁신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이디어 공모 신청 방법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나주시 교육발전 특구에 바란다'(시민 아이디어 모집 안내)에 있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구 지정과 교육 분야 관심이 있는 학부모, 시민 누구나 공모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녀 교육과 우리 지역 교육·정주여건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녀 교육을 위해 나주를 찾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신청 지역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사업의 적절성과 우수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공모 신청은 지난해 11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안/기자

전남도, 함평 자연생태공원에 공공승마장 들어선다

농식품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20억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공공승마시설 지원사업에 함평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20억 원(국비 8억·지방비 1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승마시설 지원사업은 전남도의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계획 일환인 '말 문화 힐링 복합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함평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의 현장심사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과 연계해 가축사육·가공·산단 조성·연구·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5천억 규모)으로 '말 문화 힐링 복합 공원 조성'이 포함돼 있다.

함평 공공승마장은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부지(9천200㎡) 일대에 클럽하우스 1개소(1천200㎡), 실내외·원형 승마장 3개소(4천700㎡), 마사 1개소(1천15㎡), 말 구입 25마리, 말 보행기 1대 등 시설을 2025년까지 갖추게 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함평에 공공승마장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말 문화 힐링 복합 공원 조성'에 한 걸음 더 내디뎠다"며 "앞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함평을 명실상부한 축산 힐링·치유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남원시 시무식 갖고 2024년 시정 힘찬 출발

남원시가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시정의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갖고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 기틀' 마련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 3년 차로 접어드는 올해 '변화하는 새 희망 남원의 기틀 마련'을 위해 더 거침없이 도전하고, 행동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저와 우리 시 전 공직자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특별히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교육거점도시로 남원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서남대 부지 매입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전북대학교와 협력 계획을 수립해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미래 수송산업, 바이오산업 등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강소기업 유치를 위해 물류비, 숙소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본 기업에 대한 생산인력 지원, 판로 확대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로 역동하는 남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로 문화와 관광이 성장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광한루원 중심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현재 함파우에 도자 전시관, 키즈 아트랜드, 스마트 루나, 달빛정원, 아트 아카이브관 조성 등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중인만큼 함파우 아트리프트를 세워 광한루원과 함파우 아트밸리 관광지를 연계시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싶은 남원관광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긴축재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00개 사업 2,020억원 규모의 공모선정 등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둔 만큼 올해 공모 선정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 남원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1일 덕음봉 일원에서 갑진년 새해 해맞이행사를 가졌으며, 2일에는 시무식에 앞서, 최경식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오전 9시에 만인의총을 찾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이남출/기자

2024 갑진년(甲辰年)! 순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5가지 이유

2023년은 그야말로 순천(시장 노관규)의 해였다. 도시 전체를 무대 삼아 장장 7개월간 펼쳐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3정원박람회)는 국민 5명 중 1명이 다녀갈 정도로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으며, 수익금 333억 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찍부터 생태와 정원이라는 독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 변화를 준비해 온 결과, 지방소멸 위협과 기후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마저 얻었다.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순천이, 2024년에는 '생태와 정원'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AI와 문화'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 확 달라진 'K-디즈니, 순천'을 선보인다.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보여준 삼합(三合)의 저력!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의 다양한 성과의 바탕에 삼합(三合)의 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예측해 그에 걸맞은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지혜를 내놓는 공직자, 그리고 품격있는 시민이 한 마음으로 보여준 삼합의 힘은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양한 상상을 현실로 바꿔냈다.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해 도시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었던 경전선 도심 통과를 우회 결정으로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2023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성숙한 시민의식을 선보였다.

이러한 순천의 성과는 올해의 지방자치 CEO상,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특별상 수상 등 외부 평가를 통해 인정받았으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대상지,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그 효과를 톡톡히 확인할 수 있었다.

▶ AI와 함께 미래로 가는 'K-디즈니 순천' 완성!

2023년이 정원박람회의 해였다면, 2024년은 'K-디즈니'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하나로 미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처럼 순천에도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신산업을 키워낸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회는 미국 선진지 견학을 통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주소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조적인 기업환경으로 1,300여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픽사 스튜디오와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디즈니랜드 등 관련 산업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시는 순천만과 정원을 품은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가 인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월트 디즈니 본사와 같은 역할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애니메이션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해 순천 전역을 문화콘텐츠 산업 기지로 바꿔내는 한편,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산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정원 역시 새롭게 리뉴얼한다. 아날로그적 정원에 완성도를 더하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젊은이에게는 재미있고 노인에게는 편안한 3대가 함께 즐기는 정원으로 탈바꿈시킨다.

▶ 지식집약형 미래산업 육성으로 준비하는 미래 순천 경제

2023정원박람회 성공은 확 달라진 지역의 경쟁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영역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생물전환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는 사업비 62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순천에 바이오산업이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 시는 체계적인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승주읍 일원을 화순과 김해를 잇는 남해안 바이오산업 허브기지로 키워낼 계획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립에도 속도를 높인다. 오는 1월 착공하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순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미래를 향한 투자 역시 계속된다. 기업 투자와 신산업 유치를 위해 해룡산단2-2와 도시첨단산단, 국가산단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재편한다.

지역 인재 육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으며, 시는 순천대학교와 함께 지역의 3대 특화 분야인 스마트팜, 애니메이션, 우주항공·첨단소재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재를 적극적으로 키워나간다.

▶ 순천만의 품격을 도심까지 확장, 도시 생태축 복원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 수립부터 퇴적토 준설 등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국비 지원을 통해 더욱 탄탄히 정비한다.

순천만의 품격 역시 도심까지 끌어올린다. 동천 하구 훼손된 습지를 복원해 탄소흡수 능력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여자만 일원에 해양정원을 조성해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도심 곳곳을 실핏줄처럼 연결하는 옥천과 이사천 정비에도 속도를 높인다. 동천의 지류인 옥천과 이사천을 정비해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하는 한편, 신대천을 정비해 청계천 못지않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명품 정주환경 조성

시민의 삶을 위한 정주 환경 역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보건, 의료, 복지 등 생활밀착형 시책들을 새롭게 발굴해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정주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관내 여러 병원들이 하나의 종합병원처럼 기능하도록 하는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높여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승마와 재활이 어우러진 말산업 육성을 통해 고급 스포츠로 여겨졌던 승마를 시민들의 삶 속에 끌어들여 시민 누구나 질 높은 여가·체육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다. 이에 더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어간다.

대자보 도시 완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내버스 노선은 더욱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도심 어싱길 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걷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자보 도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패러다임 전환에서도 앞장선다. 지난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꼼꼼하게 추진해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발생한 에너지를 시민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승준/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축하 특별할인 행사 줄이어

전북자치도 출범 축하 분위기 고조 위해 도내 유통업계 자발적 참여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아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축하하는 특별할인 행사가 1월 한달 내내(1.1~1.31)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1.18)을 앞두고 도민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을 체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유통업계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우선, 대형마트업계는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각 사의 특색이 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할인행사를 도내 전 매장에서 추진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매장 내외부 및 주차장 등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내용의 현수막 및 배너 등 홍보물이 게첨되고 매장내부의 스크린에는 특별자치도 홍보영상도 상영된다.

또한, 가전업계 대표주자인 삼성스토어·LG베스트샵·전자랜드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에 동참한다. 각사는 도내 전 매장 내외부에 특별자치도 축하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출범기념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지형 전북도 자치제도과장은 "도내 최고의 유통기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함께 축하하고 붐업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출범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로 말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2023 비상대비훈련 유공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충무훈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완벽 수행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기관 선정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행정안전부 예비심사, 2차 대국민 공개검증, 3차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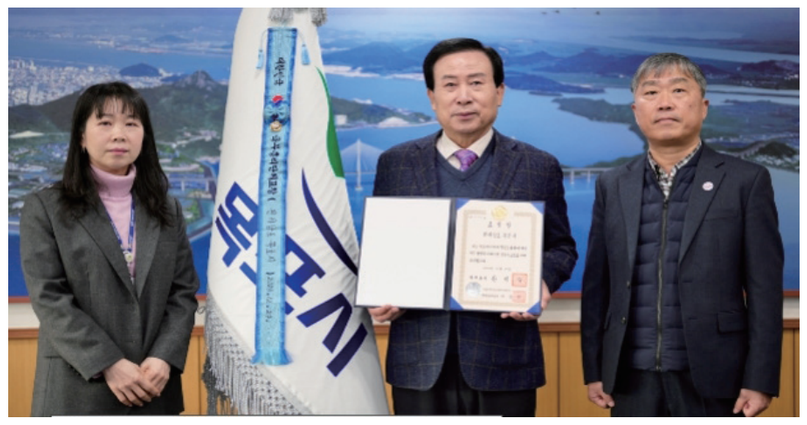
올해 해당분야로 정부포상을 수상한 자치단체는 목포시를 비롯한 총 5개 지자체로 전·평시 비상사태를 대비한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 등을 우수하게 실시한 기관에 수여됐다.

목포시는 훈련 전 과정에 대한 단체장의 높은 관심도 및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시민홍보를 통한 훈련분위기 조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한 점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충무훈련 간 실제훈련 시 단체장이 훈련 현장에 직접 참여해 유관기관간 토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했고, 민간선박을 실제로 동원해 실전과 같은 완벽한 훈련을 통한 다변화된 안보 위협상황에 대응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표창 수상은 목포시를 비롯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와 철저한 안보의식이 만들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완도군, 신년 화두 '일비충천(一飛沖天), 대업 성취한다!'

신년사 통해 해양치유산업 등 7대 군정 운영 방향 제시

신우철 완도군수는 1월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신년 화두는 한번 날면 높이 하늘까지 닿아 대업을 성취한다는 뜻의 일비충천(一飛沖天)으로 정했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내 최초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하면서 해양치유 시대의 서막을 열었고,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광주~완도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공직자와 성원을 보내준 군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 군수는 더 큰 도약을 이룰 7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해양치유산업 본격 추진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한껏 드높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수, 해조류, 갯벌 등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 제공으로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둘째, 군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조성해 천만 관광객 시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섬마다 지닌 치유 자원을 특화해 완도 전역을 '치유의 섬'으로 만들고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치유산업과 연계하여 더 큰 관광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등을 중심으로 산학 연구 체계를 탄탄히 하고, 해조류를 소재로 한 신소재 개발 및 기능성 식품, 의약품 개발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넷째,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전복과 해조류 신품종 개발·보급, 아열대 과수 재배 확대, 스마트 팜·축사 현대화, 전략적 마케팅·해외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대규모 SOC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군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등 SOC 사업이 지역 발전의 호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어촌 뉴딜, 광역 상수도망 및 LPG 배관망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여섯째,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및 복지 주택 건립,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영유아 보육료·양육비, 결혼이민자 친정 나들이·건강 검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일곱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비용과 카드 수수료 지원, 연근해 대형 선단 유치 등과 더불어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대 체육행사 성공 개최, 해양치유정원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축제를 통해 지역 경기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끝으로 신 군수는 "군민의 삶에 행복을 더해 드릴 수 있도록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확실한 변화를 일궈나가겠다"면서 새해 각오를 전하고 "우리의 발자취들이 완도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보성군, 신년 현충탑 참배로 희망찬 군정 시작

'보성을 보성답게, 든든한 보성군' 결의 다져

보성군은 2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보성현충탑 참배로 희망찬 군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철우 군수, 군의회 의장과 전남도의원 및 군의원, 실과소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으며 중단 없는 보성 발전을 위한 각오와 굳은 결의를 다졌다.

보성군은 2024년 군정 핵심 5대 목표를 ▸소외 없는 복지, 군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행정, ▸다 함께 잘 사는 농림축산어업 육성, ▸매력 넘치는 문화.체육.관광 진흥, ▸안전한 군민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권역별 지역개발로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하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보성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을 보성답게, 든든한 보성군이 돼 군민과 향우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 보성 살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같은 날 오전 시무식을 갖고 9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오롯이 군민 중심의 체감형 군정을 열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며 2024년 군정을 힘차게 시작했다.

최원영/기자

진도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쾌거,새로운 미래 문화예술산업 조성…사업비 200억원 확보

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할 13개 지자체를 지정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진도군을 포함한 1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7년까지 각 지자체에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군은 진도아리랑, 전통무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속문화 마스터 클래스' 특성화(앵커) 사업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오래전부터 진도는 주민들의 일상속에서 시·서·화·창을 꽃피워 온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섬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종과 무형문화재 12종, 예능보유자 15명, 향토문화유산 36종을 보유하고 있는 민속문화의 수도이자 대한민국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이런 자원을 바탕으로 진도군은 우수한 민속문화예술과 다도해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새로운 미래 문화예술산업을 개척한다는 전략으로 6개의 예비사업을 포함해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예술 거점시설과 자연 활동 공간 등을 만들어 문화예술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자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민속문화예술 전문기획자 등 문화예술인력을 양성하고 진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 문화예술발전을 견인할 동력을 키울 예정이다.

체계적은 추진을 위해 민간 분야와 적극 협치를 통해 문화도시사업 운영위원회(가칭)와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문화도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일 것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문화예술인·단체와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해 군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문화도시, 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강진군, '빛나는 6070대학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새해 새로운 과정 추진...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노려

강진군은 지난 12월 27일 강진아트홀에서 '빛나는 6070대학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올 한해 6070대학의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 50여 명을 비롯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 군민 등 17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실시한 6070대학 성과와 후기를 함께 공유하고 내년 6070대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강진군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의 6070대학 23년도 성과 공유와 24년도 프로그램 소개를 시작으로 수강생 대표 3명의 수강 후기 발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양석 그린화훼영농조합 대표의 '희망 나눔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이어졌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올해 개설된 디지털 역량 강화(키오스크, 스마트폰), 생활요리교실, 건강라인댄스, 강진묵은지 담그기 등 4개 강좌의 실적을 설명하고 2024년에는 해당 과정들을 발전시켜 더욱 체계적인 과정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과정을 제공해, 강진군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성공적인 6070대학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6070대학 수강생 대표 3인(윤선순, 김형좌, 김명숙)은 당당하고 솔직한 교육 후기를 통해 빛나는 6070대학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선순(64세, 강진읍) 씨는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아 음식 주문을 하지 못한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당당히 키오스크로 주문하며 최근에는 버스표를 예매하는 등 6070대학 덕분에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추어 갈 수 있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군은 2023년 빛나는 6070대학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도자기 전문가 양성 과정 ▲강진 묵은지담그기 연구단 과정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연계 과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윤호/기자

구례군, 넛지헬스케어(주)와 함께 "우리 밀 싹 밟기 챌린지" 추진

1991년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의 시초가 됐던 구례군에서 꺼져가는 우리 밀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

2020년 기준 국내 밀 수요량은 약 223만 톤이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밀은 1만 5천 톤으로 밀 자급률은 0.7% 수준이며 2016년 1.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다.

국내 밀 생산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밀의 역사와 함께하며 지금가지 우리 밀을 지켜오고 있는 전남 구례군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밀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군은 넛지헬스케어(주)가 운영하는 건강관리 앱 '캐시워크'를 통해 우리 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챌린지를 추진한다.

이번 챌린지는 전 국민과 함께 밀 새싹을 밟는 걷기 챌린지로 겨울이면 농부들이 밀이 잘 자라도록 밀 새싹을 꾹꾹 밟아주곤 했는데 이에 착안하여 만들어졌다.

챌린지 참여는 캐시워크 어플리케이션 내 '팀워크'에서 할 수 있으며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1일 6,000보를 달성하면 최대 1만 캐시가 지급되고 누적 30,000보를 달성한 선착순 5만 명에게는 우리 밀 선물세트 20% 할인권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은 과거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우리 밀 생산 농가들과 우리 밀 가공 공장, 우리 밀 빵집과 음식점 등이 곳곳에서 우리 밀을 지켜가고 있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 국민이 우리 밀의 중요성과 장점을 알게 되어 우리 밀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강원도 물고기 겨울축제장 3곳, "청정수질" 확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겨울 축제장 수질 위생 안전성 조사를 함으로써, 대표 개최 지역 3곳(평창, 홍천, 화천)에 대해 청정하고 안전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겨울 축제 행사는 12월 28일 평창'송어 축제'를 시작으로, '24년 1월 중 홍천'꽁꽁축제'와 화천'산천어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제'빙어축제'의 경우 소양호의 높은 수위 때문에 결빙에 어려움이 있어 개최가 취소됐다.

수질 조사결과, 수인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대장균(5종)은 모든 지점에서 "음성"이었고,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검사 결과 "무독성(0 TU)"으로 하천 수질이 수생태계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유해 중금속(4종: 구리, 납, 카드뮴, 크롬) 역시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하천 생활 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총유기탄소량 1.1~2.0mg/L, 부유물질량 0.2~4.4mg/L, 총인 0.004~0.028, 수소이온농도 7.2~8.0 로서 매우 좋음(Ia 등급)의 청정한 수질을 보였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겨울 축제장을 찾는 이용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및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하천 수질보전에 힘쓰겠다" 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충남도, '공직자의 기본 덕목' 청렴 조직문화 확립한다

도 감사위, 2일 시무식서 '2024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 개최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올해도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도는 지난해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전국 최초 8년 연속 최고 등급,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 1위을 달성했다.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9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2024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은 김 지사를 비롯해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도 간부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서약 및 청렴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서약했다.

이와 함께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위를 이용한 직위·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힘쎈충남, 청렴이 곧 힘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김 지사와 양 부지사, 신규 직원이 청렴 핸드프린팅에 참여해 청렴의지를 굳게 다졌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5위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이보다 더 노력해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특성화시장 등 24곳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차별화된 콘텐츠가 가미된 매력있는 충북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난다!

충청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에 청주 복대가경시장,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24개 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21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3년 10월 5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도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발표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는데, 2023년 대비 국비 8억원을 더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3개 분야로 나뉘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화요소를 집중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31개소(첫걸음 도약시장 제외) 중 충북은 청주 복대가경시장,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괴산 청천시장이 선정되어 2년간 국비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선정된 시장 중 청주 복대가경시장은 쿠킹클래스, 특화쿠키 개발 등 젊은 마을·젊은 시장 컨셉의 문화공간 조성 전략, 제천 역전한마음시장은 관광먹거리 개발, 먹방투어 등 뉴트로 역세권·먹세권 전략, 괴산 청천시장은 지역 특산물(버섯, 올갱이) 활용 간편식 개발 등 관광특화시장 도약 전략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인 온라인 사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전통시장엔 청주 원마루시장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첫걸음기반조성 사업엔 청주 중앙시장이 선정되어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아 온라인 입점 및 배송인프라 구축 지원, 편리한 지불결제 및 상인조직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80%(개소당 국비 36백만원 이하)를 국비로 지원하는데 충북은 17개 전통시장과 상인연합회 충북지회가 선정되어 국비 5.4억원을 지원받아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및 상인교육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판촉 지원을 위한 지역상품전시회 사업과 전통시장 홍보 콘텐츠 제작.송출을 위한 지역민영방송 사업에도 각각 선정되어 특색있고 매력적인 충북 전통시장과 우수상품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이 내재된 차별화된 콘텐츠와 매력있는 특별함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도내 전통시장에 잘 접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2024 신년인사] 태백시장 이상호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이상호입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이 가득한 갑진년(甲辰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 산업위기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시작된 민선 8기는태백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600여 태백시 공직자들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어느덧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시장 취임 후 지역이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태백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과 기업, 중앙과 강원특별자치도, 국회를 방문하는 등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는 쉼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고, 연2만 2천톤의 청정 메탄올 생산 시범사업과 국가주도 장성광업소 폐광 대체 산업으로 추진될 5,219억 원 규모의 '청정메탄올 제조사업','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시설','광물 물류시설','근로자 주택단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회생의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격변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각 분야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여 위기의 격변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8기 2024년 새해는 지역의 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 시 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전략산업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우리 시 특화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어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조성','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사업','웰니스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모든 공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그리고 늘어난 가계소득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폐광되는 장성광업소 환원 부지를 중심으로 미래에너지 제조산업과 핵심광물 거점산업을 발굴하여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티타늄 광산개발 시추작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광구의 철암지역 유치로 우리 시를 핵심광물 생산의 중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지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경제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점산업단지가 올 상반기에 100% 분양 완료되어 약 4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말 준공될 고터실 핵심광물 산학연 혁신 기술단지, 산림목재가공센터에 관련분야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재/물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공공일자리를 지속 유지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센터를 운영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스포츠산업 도시 구축의 원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을 스포츠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다목적 에어돔 구장과 탁구, 배드민턴 전용 실내 경기장과 볼링경기장 증축, 축구장 추가 조성, 파크 골프장 조성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대회개최로 일년내내 스포츠 인구로 떠들썩한 동네를만들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관광 콘텐츠 강화로 관광의 재도약을 성숙시켜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와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는 대표 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며, 소규모 축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사계절 내내 축제가 열리는 페스티벌 도시 태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악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최고의 명품 산악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낙동강 발원지 힐링 시티타워는 황지 도심지의 랜드마크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 협력사업의 추전, 태백, 철암역은 백두대간의 거점역으로, 호암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하여 비와야폭포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사업 및 오픈에어 뮤지엄 사업 등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과 대중음악 아카이빙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교육,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가 한국항공고등학교로 개편하여 2024학년도 신입생이 125%의 지원율로'기적의 비상'이라는 호평 속에 개교하게 되며, 철암중·고등학교는 하계 7개 종목, 동계 2개 종목을 육성하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정보산업고등학교는 2026년 한국세무금융고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중요자산인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고등학생게 학업장려비를 지원하고, 시민휴식처와 더불어 평생교육문화의 복합교육 문화공간이 될 꿈탄탄이음터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을 2027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출산·양육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난임진단, 시술비 지원 등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출산환경이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올해 본격적으로 건립되는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를 통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출산 및 산후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저출산 극복과 양육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분만 취약 지구 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모 55병상의 태백요양병원이 1월 개원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고령화 시대의 선도 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통한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언제든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원격 화상진료사업과 사조와 철암보건지소의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1차 진료 및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장성지역 에 개소하는 건강생활 지원센터의 주민건강관리 및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며 '민선 8기 시정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동서고속도로 태백IC 유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선 직선화와 2028년까지 태백선과 영동선의 무궁화호 열차를 ITX-마음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임 시 시민과 약속한 4대 분야 22개 공약사항을 임기내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이 원하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으며, 각종 현안 사업은 속도감 있는 현장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었던 석탄산업이 종료되는 이 시점,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다해낼 수 있다는 금석위개(金石爲開)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하여 태백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며, 이를 위해 극세척도 (克世拓道)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스포츠, 관광, 경제 재도약으로 인구가 회복되고, 미래 성장 동력이 제 궤도에 오른 2027년 에는 태백의 재도약을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지켜보며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사랑하는 태백시를 "작지만 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내일이 더 좋은 태백시"로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상근/기자

아산시, '2024. 갑진년(甲辰年) 신년 해맞이 행사' 성료

아산시는 1일 오전 6시 50분 새해를 맞아 아산 안보 공원(남산)에서 개최된 '2024. 갑진년(甲辰年) 신년 해맞이 행사'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아산시 시의원과 도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이영도 아산시 경찰서장, 오치석 아산시 노인회장 등 아산시 주요 기관과 사회단체장이 대거 참석했으며, 충남아산FC 프로축구단 선수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2024년 올 시즌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새해를 여는 타악그룹 '고리'의 미디어 모듬북 공연과 아산시립 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2024년 희망의 첫 해오름 순간에 맞춰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담은 조형물 점등 해맞이 퍼포먼스가 있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소원지 나무 매달기', 행사장을 찾은 가족·친지·지인과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추억 포토존' 운영 등 해맞이 행사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외에도 첫 일출을 감상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활기찬 새해 분위기가 연출됐다.

특히,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 · 아산시 새마을회(떡국), 아산 청년회(어묵), 하나은행 아산금융센터(떡), 아산시 자원봉사센터(핫팩)에서 정성껏 준비한 나눔 행사가 따로 진행되어 해맞이 행사를 더욱 훈훈하게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 꼭 성취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새해, 청룡의 기상을 닮은 우리 아산시가 얼마나 더 높고 힘차게 날아오를지 어떤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얼마나 큰 도약과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며 새해 시정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참석한 아산시민들에게 아산100년 미래인 아산항 트라이포트 국제무역항 개발과 국립경찰병원 건립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원호/기자

[2024 신년사] 대구 굴기 대구시장 홍준표 신년사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청룡의 힘찬 기상이 온누리에 넘쳐나고 시민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장으로 취임한 후 1년 6개월 동안'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250만 대구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대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대구굴기(大邱崛起)'를 천명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서 대개혁(大改革)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TK신공항 건설, 군사시설 이전, 산업 대개편 등 미래 50년 번영의 대구굴기 핵심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TK신공항 건설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이 기폭제가 되어 11월 20일 국방부와'군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의 경제구조를 5대 미래 신산업인 ABB,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헬스케어 중심 으로 과감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新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전략적 뒷받침으로1년 반만에 28개사 8조 1,400억원의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대구 재건의 첫 과제였던 공공·재정·민생분야 대개혁을 단기간에 완성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임원연봉 상한제, 위원회 정비 등 공공개혁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 거대 독점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에 맞서 만든

'대구로 택시' 안착 등 민생개혁은 전국 유일의 성공 사례입니다.

아울러,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없는 건전재정과 고강도 채무감축 등 재정개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재정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대구의 핵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뒷받침이자 32년 지방자치의 해묵은 과제였던 자치조직권도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대구의 개혁 정책들은 전국으로 퍼져 나가 대한민국 정책과 비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저와 1만 2천명 대구시 공직자들은'대구굴기'를 향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완성된 대구굴기 핵심 틀을 빈틈없이 채워 계획했던 일들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 50년 대구굴기 대변혁의 핵심은 TK신공항 건설입니다.

제대로 된 공항을 신속히 건설하는데 역량을 총 결집하겠습니다. 현재 16단계 중 13단계에 도달해 9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공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민간부문은 삼성그룹 등 메이저 건설사가 중심이 되어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 공구별 동시 착공과 준공을 거쳐 2029년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조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활주로는 최대 3.8km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전 기종 항공기가 미주와 유럽 등으로 장거리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항공물류 여객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글로벌 첨단물류 여객 복합공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時 인천공항을 대체해서 365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호남의 30년 숙원인「달빛철도 특별법」은국회 통과와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공항 개항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영호남을 중심으로 TK신공항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남부경제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주도하겠습니다.

둘째, 산업구조 대개혁으로 확장된 경제 영토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 산업 지도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구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함께 수성알파시티를 비수도권 최대 글로벌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하는 예타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8천억 규모의 SK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과 18만평 규모의 제2 수성알파시티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분야는 DGIST, 경북대학교와 협력하여R&D, 인재양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수의 팹리스(설계) 및 파운드리(제작)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역량을 바탕으로 기계· 금속 등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모빌리티, 첨단로봇 등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분야는 1조원 규모의 민간기업 투자를 기반으로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활성화 하고, SKT, 한화, 한국공항공사와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UAM 시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봇 분야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기에 조성하고 AI로봇 글로벌혁신특구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로봇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IT가 융합한 BIT 융합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첨단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미래 도시 그랜드 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 대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구는 군위군 편입으로 서울의 2.5배,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4년 만에 유치한 달성군 제2국가산업단지가 더해져 군위 신공항까지 이어지는새로운 남북 경제발전축이 완성됐습니다. TK신공항 배후 군위군에는 신공항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춘 에어시티도 건설해서 신공항 중심의 거대 新경제권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공항이 빠져나간 후적지는 두바이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최첨단 미래 인프라를 갖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난제로 꼽히던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도 지난 12월 14일 국방부와「민·군 상생 MOU」체결을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부대 통합이전 사업으로 이전후보지 도심은 주거·교육·의료·문화를 아우르는 밀리터리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군부대가 떠난 후적지는 도심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고, 이전을 완료한 화원교도소는 미술관, 뮤지컬극장 등 시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를 다시 심장이 뛰는 젊음의 거리로 바꾸고자 관광, 청년문화 부흥, 골목상권 활성화와 함께 도심공간구조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심의 공실을 강의실, 실습실 등 통합캠퍼스로 활용하는 도심캠퍼스타운 조성도 획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는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서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50만 대구시민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개혁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맑은 물 하이웨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깨끗한 물을 최상류인 안동댐에서 대구정수장까지 최단 거리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가 주도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쾌적한 수변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금호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과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등 선도사업에 국비를 확보했고 202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대표 도심하천인 신천 일대는 푸른 신천숲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고품격 수변공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전국 3대 공영도매시장인 북구 매천동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민의 숙원해결을 위해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을 마무리하고 대대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영남 내륙권 농수산물의 거점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들이 직면해 있는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올해 전국 최초로 대학정책을 전담할 대학정책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대학의 질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구가 선제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국제정세 불안과 불확실한 국내경제 전망, 유례없이 힘든 재정상황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상황에서도 새해 시정을 올바르고 탄탄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대구굴기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자랑스러워하고 후손들이 대구가 비상했던 위대한 시대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반드시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 1. 1.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윤근수/기자

[2024 신년사] 영덕군수 김광열 신년사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출향인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참으로 오랜만에 경북대종 타종 소리와 함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맑은 바람, 태양의 기운이 가득한 영덕에서 힘차게 울린 종소리가 온 누리에 새해의 희망을 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운과 성공의 상징인 청룡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넉넉함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웃음이 넘쳐나는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에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출향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 새해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 건설'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난의 위기를 공직자들의 헌신과 군민들의 협력으로 큰 피해 없이 극복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액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비 확보에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올해는 전년보다 국도비가 298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 행정,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실천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조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공직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만들고, 다가오는 미래를 영덕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들을 군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겠습니다.

2024년은 사상 처음으로 군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과 산학 연계사업, 그리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380억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는 동해안 최고의 수산 가공 종합단지로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장년 취업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은 지역의 개성과 특성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특화해 개발하여 우리 군 3대 전통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천만 관광객, 전국 해안관광 1번지의 도시 영덕군의 명성에 걸맞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명품 트레킹 코스인 블루로드에 최근 열풍인 황톳길 맨발걷기 구간을 조성한데 이어 블루로드 구간별 테마로드 조성, 스테이 블루로드 축제, 관어대 이색풍경 웰니스 관광지 조성사업, 문산호 리뉴얼 사업 등 우리가 가진 청정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영덕 춘·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동.하계 풋볼 페스타, 전국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를 연계한 관광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복지영덕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영덕군 실버복지관 운영, 읍면 노인대학 운영,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 마을회관 주변 정비 등 편의시설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내일을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군민의 뜻을 모아 조성한 110억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통해 연간 2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21개 초·중·고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고교 특성화 교육과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영덕 한빛교육바우처 지원사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관, 통합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겠습니다.

넷째, 농산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을 올해보다 3.5% 증액한 1,124억 원을 편성하여 살기 좋은 농산어촌,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신활력 Y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농어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민 수당을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택배비, 포장재, 병충해 방제 지원, 농어업 유류비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농어민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가입 확대 등으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생산량 1위 영덕 명품송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덕송이와 우리 농산물의 서울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판로 개척과 홍보로 우리 농·수·특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부가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강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치유의 숲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에도 전력을 다해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재난대비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안전한 영덕, 살기좋은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국비 포함 1,161억 원의 재해 대응 사업비를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 '괴시.벌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병곡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축산·영해·영덕·강구 도시침수대응사업' 등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군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남석리 도시재생사업,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영해 남천구역 하수도정비사업과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남정면과 병곡면의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등을 거점 조성 전략으로 추진하여 함께 누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에 건강하고 여유로운 문화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강구건강활력센터, 예주 행복드림센터 등 생활SOC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좋은 영덕, 모두가 행복한 영덕을 앞당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향해 남들보다 빠르게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그리고 군민의 저력을 결집시킨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영덕의 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영덕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문화/기자

[2024 신년사]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자랑스러운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청룡' 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수해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

지만,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신 군민 여러

분과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와 일상 업무를 병행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연재해라는 복병을 만나 다소 지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경영성과 부문 전국 2위, 종합경쟁력 부문 전국 9위로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와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3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인 1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기술보급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너지효율 친환경 부문' 대상, 경북도 주관 '시·군 농정평가' 최우수상,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와 '도민안전시책평가' 최우수상, '탄소중립실천평가'와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우수상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만큼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여 행정·문화·복지·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했고, 물놀이장, 캠핑장 등을 갖춘 패밀리파크도 일부 개장해 운영하는 등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 예천읍에는 장난감도서관, 돌봄센터가 있는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가 문을 열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6월에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예천군이 스포츠 도시로 다시 한번 주목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활축제, 삼강나루터축제, 농산물축제, 그리고 금당야행 등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를 흥행시키며 많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새해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여 예천이 경북의 중심도시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새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대응·지원까지' 더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위기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연재해 현장 복구작업은 T/F팀을 가동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4억 원 규모의 예천읍 도시침수예방사업을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 접종 사업으로 군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도시와 원도심의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호명 신도시는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활기찬 곳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인 물놀이장, 캠핑장, 파크골프장, 농구장 등을 갖춘 패밀리파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된 송평천 일대를 가족친화적인 공원으로 바꾸어 가족 단위로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힐링 공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1공영주차장에 지상 4층, 310면 규모로 1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모아엘가와 홍구동 사거리를 연결하는 외곽도로 공사를 시작하여 주차 및 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는 183억 원의 사업비로 4년간 추진해 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200억 원이 투입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간판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만들 것이며,

서본·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곧 마무리하고 신규로 선정된 백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이 500억 원의 예산으로 지보면 매창리에 조성됩니다.

이곳에는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임대형 수직농장이 입주하여 지역 농업의 첨단화는 물론 청년 농업인 유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농가의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가공과 국내·외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한우특화센터를 건립하여 예천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상설시장 활성화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광자원 발굴과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예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예천읍과 신도시를 경유할 수 있도록 남산공원과 패밀리파크를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 육성사업과 서본공원 정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회룡포와 삼강문화단지, 천년고찰과 태실, 석송령과 박물관, 곤충생태원 등 기존 관광지를 서로 연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과 양궁을 비롯한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하고 예천이 전지훈련지로 더욱 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5월 21일부터 6일간 60개국 700여 명의 세계 양궁 선수들이 참가하는 '예천2024현대양궁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공사 중인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양궁훈련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해 육상과 양궁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예천읍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서두르고, 출산지원금 지급, 아이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보육 부담은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은 배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패밀리파크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입 진학 전략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문면 신월리 일대 계획 중인 제3농공단지는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되면 4월에 착공해서 투자유치 여건을 마련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에 건립하고 있는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준공에 발맞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일대에 지식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위기를 겪으며 예천은 더 강해졌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화합과 단결로 예천의 더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무장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도전적인 행정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경북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2024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 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1.

예천군수 김 학 동

정금자/기자

[2024 신년사] 상주 시장 강영석 신년사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우리 상주도 하늘이 내리는 기회와 같은 중앙 정부의 정책적 수혜와 상주만의 공간적 지리적 이점이 시민의 인화 단결로 꽃을 피우는 중흥하는 미래 상주의 기치를 높이 올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는 물실호기(勿失好機)의 자세로 달려왔으며, 지방소멸위험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시대적 도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는 묵은 숙제를 해결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불과 3년 반 사이에 청리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준공, KTX예타통과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유치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상주일반산업단지 준공과 분양을 완료하고, 60만평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과 30년 숙원사업인 시청 신청사 건립을 확정하였고, 전국의 지자체와 경쟁을 벌여 국민안전체험관을 유치하는 등 중흥하는 미래 상주의 동력이 될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금년에 해야 할 일들의 마중물이 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분명 더 발전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본 예산을 1조 1,750억 원으로 편성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본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작년 12월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각종 평가와 사업성이 검토될 것이며,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구시가 책임지는 부대 이전 관련 기부자의 역할 외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할 것이며, 그러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 네트워크 확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이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주 경제의 근간인 농업은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기반으로 청년 창농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대규모 스마트팜 임대단지 및 창농단지가 조성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과학영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단지는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 등에 대비하고, 상주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주의 산업지도를 바꿀 60만평 이차전지 클러스터는 정부의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용지를 매수하고, 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최대한 빨리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차전지 클러스터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기필코 성사시켜 기업의 투자유치가 봇물 터지듯 몰릴 수 있도록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 상주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에 실패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지역 내에서 인력양성 대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으로 우리는 경북도와 기업들, 경북대학교와 상주의 실업계 고교들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재양성을 통해 연구인력과 기능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이용해서 외국 인재의 지역내 기업 취업과 대학 진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이전 유치에 실패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총선 이후로 예정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비혁신도시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법률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부에서는 1기 혁신도시 건설이 과오였다는 정책적 반성을 하면서, 비혁신도시의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수혜를 입기 위해 원도심 공간확보 대책과 함께 정부에 신청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도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상주시청 신청사 건립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콤팩트시티 개발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동시에 할 일이 많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회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에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상주의 정주 인구를 확보할 것이며, 더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체류인구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개최한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축제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점하고 '모자'라는 세계인 공통의 소재를 이용하여 축제 한가지로 지역경제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한 축제도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그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만화특화 시립도서관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이 발동되고 그곳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일본 다케오시는 인구 5만 명의 도시이지만, 시립도서관 하나가 연간 100만명의 방문객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은 우방공원, 어린이 공원을 연계해서 일본 고치현의 만화 고시엔 같은 행사를 기획하고, 전국의 청소년과 가족들이 찾아오는 상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 상주지점 개설과 함께 청년 외식창업 교육과 창업지도를 통해 외식산업 문화를 바꾸고 민생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왕산주변 정비와 상주읍성 북문 복원, 남산공원의 체계적 개발 등도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과 투자로 지역의 성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으로서의 일생이 행복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시민 생활 지원체계 확충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친해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국가와 도시는 번영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수많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위험이 다가온다고 주저하지 맙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과 누군가는 승자의 역사를 쓰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너, 나, 우리를 위해 뛰시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상상주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저력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분명 지난해보다 나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상주시장 강 영 석

장문화/기자

[2024 신년사]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교육 가족 여러분!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에는 '성장, 조화, 미래'를 핵심 가치로 하여'제일 먼저 새롭게, 보다 높이 이루고, 가장 널리 누리자!'라는 전략으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 K-EDU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겠습니다.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해답을 찾아가는 학생 주도형 수업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플랫폼으로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이 공존하고 서로가 존중하는, 조화로운 교육공동체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교원보호 긴급지원단 운영,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미래 역량을 키워 K-EDU,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세계시민교육과 생활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등에 정보화 지원 사업과 컴퓨터 나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푸른 용의 활기찬 기운으로 더욱더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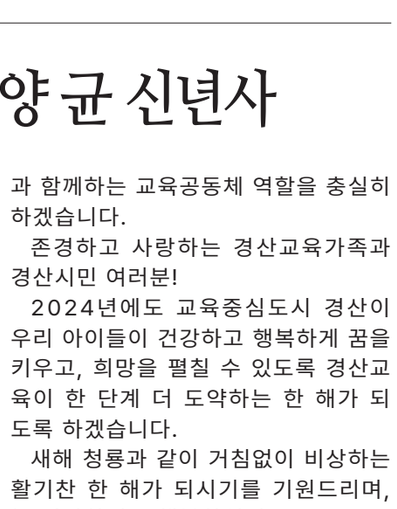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24. 1. 1.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

윤근수/기자

[2024 신년사]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양 균 신년사



사랑하는 경산교육가족과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고 힘차게 도약하는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힘차게 도약하는 푸르른 룡처럼 활기차고 건강한 기운이 온 가정과 학교,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는 비단 경산교육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교육현장에서 학습권과 교권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제들이 우리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러함에도 중단할 수 없는 교육이라는 긴 여정에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교육가족 여러분과 늘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내주신 경산교육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경산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 강화, 학생 중심의 자유학기제 운영, 성찰하고 공감하는 독서·인문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울림 학교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지원, 꿈을 키우는 미래형 학교 구축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가족 모두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산교육가족과 경산시민 여러분!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지난해 교육성과의 바탕 위에 배움과 실천, 꿈과 미래교육, 희망과 믿음의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이라는 4개의 정책목표를 세워 경산교육이 청룡과 같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을 실천하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등 역량 기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초소양 및 공동체 가치 함양,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성장이 있는 기초·기본 학력 보장, 유·초 이음교육 확대로 학교급간 전환기 교육 강화,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학생 주도형 수업 정착, 성찰 중심 수업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해 학생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질문이 넘치는 교실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꿈을 키우는 신나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삼성현의 성품을 기르는 인성교육, 감성의 힘이 자라는 예술교육, 몸과 마음의 힘이 되는 체육교육,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남부미래교육관 운영의 활성화, 미래 역량을 기르는 창의융합교육, 잠재력을 계발하는 영재교육, 교육과정 연계 글로벌 교육 강화을 통하여 더 큰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희망과 믿음으로 성장하는 학교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과 365일 온(溫)종일 안전한 유치원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다문화 학생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시스템 활용, 공존과 이해의 성숙한 사회를 위한 다문화 교육으로 다름을 넘어 어울림의 다문화 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배치 등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과정 연계 인권 교육 적용과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지원으로 인권교육과 학생 자치 활성화, 원스톱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권보호 지원, 「경산 바로지원 365!」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혁신하는 교육 지원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지원 중심 교육지원청 역할 재구조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학교업무의 내실화, 수요자 중심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강화를 통한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그린스마트스쿨,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현장 지원 중심 인사 운영, 유연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확산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산교육가족과 경산시민 여러분!

2024년에도 교육중심도시 경산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을 키우고,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경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청룡과 같이 거침없이 비상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 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양 균

박종배/기자

[2024 신년사]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이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경남교육을 통해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갈 역량을 기르는 것, 이것이 저의 교육적 사명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전망과 교육공동체의 실천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교육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경남교육은 자립과 공존의 미래 역량을 키워 우리 학생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본질 회복과 미래교육으로 전환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의 모든 정책을, 학교를 중심으로 세우고 펼치겠습니다. 2024년 경남교육은 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자립과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남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미래를 살아갈 모습을 상상합니다. 지금의 경남교육이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의 삶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전환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모든 교직원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남교육공동체와 함께 걸어온 10년의 길, 자립과 공존의 경남교육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도민과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새해에도 경남교육에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장재현/기자

우리 기억 속에 남을 화림 축제

영덕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7일(수), 1년 간 학생들이 가꿔왔던 학업 성과와 끼를 엿볼 수 있는 화림 축제(이하 축제)를 개최하였다. 총동창회장, 학부모회장 등 여러 내빈들도 참석해 여러 주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다.

오전, 학급/동아리에서 부스를 운영하여 특색있는 여러 활동을 펼쳤다. 특히 평소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교구와 드론 등을 이번 기회에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되면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바자회와 푸드트럭 등 다양한 모금 활동도 이루어져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연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이어 오후, 크게 학생 자치회에서 주최한 각종 오락 활동과 여러 학생들의 장기, 끼를 엿볼 수 있는 장기자랑을 진행, 오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평소 볼 수 없었던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정을 돈독히 다졌다. 그리고 장기자랑에서는 특별 공연 2팀을 포함해 약 15개 가량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춤, 노래뿐만 아니라 짧은 뮤지컬, 특기 자랑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넘치는 끼를 모두 함께 즐겁게 구경하였다.

이번 축제에 대하여 임동환 교장은"평소 학업 정진에 매진하던 학생들이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창의성을 맘껏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되었다. 이번 축제의 주제처럼 오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축제의 추억이 오랫동안 남아있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장문화/기자

2023학년도 영덕고등학교 학교 축제 개최

경북교육청, 교육부 적극 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우수 동시 수상

전국 시도교육청 유일 3년, 6회 연속 수상, 적극 행정 문화를 선도하다

임종식 교육감, **"교직원이 우수한 적극 행정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쁘며,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보상에 약속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주관한 "2023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도교육청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받으며 전국 최초 3년 6회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주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반기별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가.진행되고 경북교육청은 올해만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건의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

2021년에는 △최우수, 전국 최초! 온라인 고입 전형 시스템 △최우수, 교통사고 NO!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우수, 미래형 교육모델 개발-한국형 실시간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이 선정됐다.

2022년은 △우수, 영유아 장애 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고 △장려, 전국 최초 아차 사고 신고제가 선정됐다.

2023년 상반기에는 △우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유 바우처 시행 지침 개정 △장려, 교육기관 최초 안심 아이 쉼터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최우수, 전국 최초 학교 시설 수선 주기 기준 마련(경북교육청 주무관 안승완) △우수, 전국 최초 AI 활용 플랫폼 구축 운영(경북교육청 장학사 정기효)이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이 3년 6회 연속 수상한 사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공기관에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런 실적은 경북교육청이 지속해서 적극 행정 문화를 구축.선도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로, 교직원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혜택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교직원이 우수한 적극 행정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쁘며,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보상에 약속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 문화를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천

포항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12. 27.(수), 포항시 흥해읍 칠포로에 위치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인 선린다온에서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중등교육과 직원들은 선린다온에 방문하여 선물 세트 및 생필품을 전달하였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과 과학 키트 만들기 및 독도 퍼즐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내부 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을 함께한 박용래 중등교육과장은 "오늘 봉사활동 시간을 통해서 가정 내 여러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교육 가족의 사랑 나눔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외남초등학교 제92회 졸업식

외남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9일(금) 10시30분 부터 제92회 졸업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졸업식에 학부모들께서 참석하시어 졸업생들을 축하해주시고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는 자리를 가졌다.

6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배움으로 성장한 졸업생들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다.

후배들의 졸업생 축하 영상 메시지는 웃음과 감동을 자아냈으며 졸업생들의 답사는 눈물을 글썽이게도 했고 초등 6년간의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이 담겨진 사진 영상은 떠나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였다.

졸업생 황OO 학생은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과 더 재미있게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쉬워요. 졸업 후에도 외남초등학교에 꼭 놀러 올게요."라고 말하며 아쉽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모교를 찾아올 날을 기약하였다.

김동현/기자

추운 겨울아! 함께 성장하자!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2023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 옹달샘 30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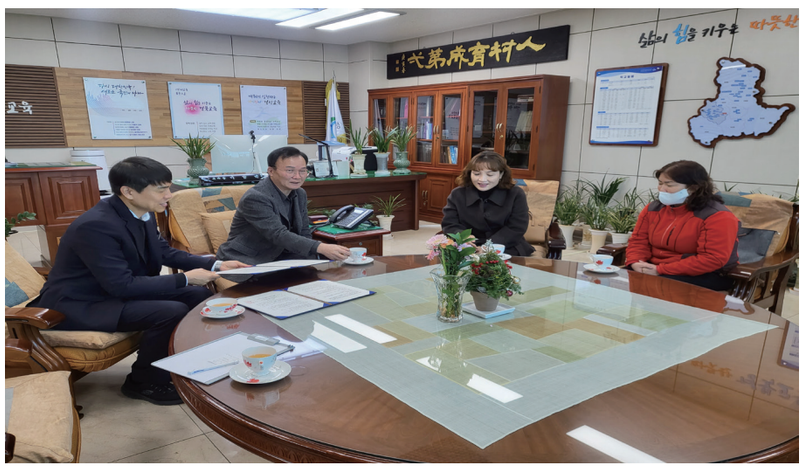
경산교육지원청은 오는 1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작은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옹달샘 교실 - 특수교육대상학생 겨울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겨울 계절학교는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시장애인부모회가 함께 협력하여 방학 중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경험,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의 장을 제공한다.

겨울 계절학교 운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기본 생활습관 형성 교육 및 성교육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로·직업연계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대인관계 기술 향상을 기대하며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모태화 센터장은 "방학 중 지속적인 교육 활동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교육비 절감 및 가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추운 겨울 학생들과 학부모님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문수초, '파티쉐'진로 체험 실시

연말 케이크 만들기 체험으로 미래 파티쉐를 꿈꿔요!

문수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9일(금), 본교 유치원 및 전교생 78명을 대상으로'파티쉐 진로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체험은 구성로케이크 대표 남정민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다.

맛있는 동물성 생크림을 바른 케이크 시트에 딸기, 샤인머스켓, 귤 등의 다양한 과일로 장식을 해서 나만의 개성있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번 수업을 참여한 6학년 권혜윤 학생은"맛있는 케이크를 만드니 내가 진짜 파티쉐가 된 기분이다. 직접 만든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연말파티를 할 것이다."며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함께 진로체험 행사에 참여한 교사 이세라는"이번 행사로 아이들이 파티쉐라는 직업을 잘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진로교육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정금자/기자

의성중학교 경북교육청주관 '학생 생활교육 최우수교 선정'

의성중학교는 2023학년도 경북도교육청 주관 '학생 생활교육 최우수교'로 선정됐다.

학생 생활교육 최우수교는 도내 모든 학교의 생활교육 실적을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자료를 평가해 매년 초·중·고를 대상으로 9개교를 선정한다.

의성중학교는 생활교육계획,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의성중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행복학교, 행복학급 운영, 학생자치회 학교폭력예방 활동, 다양한 스포츠 예술활동 및 방과후 동아리활동 지원, 국제교류 운영 등 여러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인성함양 및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생활안전부 박수영 부장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생활교육 최우수교에 선정될 수 있었다. 항상 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장재익 교장은 "이번 최우수교 선정은 올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통해 학생생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장애인식개선교육

현동중학교 전교생들은 지난 28일(목), 도서관에서 본교 특수교사 김00 선생님에 의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장애의 종류와 특징, 장애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에티켓, 장애인 차별금지 등의 강의와 2023년 청소년대상 장애이해교육 드라마'갈채'시청을 하며 실시하였다.

특히 안내견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드라마로 후천적 시각장애인과 퍼피워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귀여운 강아지가 나오는 영상에 학생들은 귀여워하며 영상에 더욱 집중 할 수 있었다.

현동중학교는 앞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장애체험활동을 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예천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 최초 재택당직근무 시행

이창희 교육장,"재택당직 근무로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절감과 업무 공백도 줄어들 거라며,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2024년 새해 1월부터 당직근무를 재택당직 체제로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9일「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재택당직 운영 대상기관을 직속기관 및 학교에서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적은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최근 남성 직원 감소에 따른 잦은 숙직 업무 도래로 피로도 가중 및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 공백 등을 최소화 하고자 경북교육청 산하 22개 교육지원청 중 최초로 재택당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재택 당직으로 교직원의 당직 업무 부담 경감, 업무 집중력 향상 등 업무여건 전반의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창희 교육장은 "재택당직 근무로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완화되고 예산 절감과 업무 공백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사랑한다고 말해줘' 정우성X신현빈X김지현, 서로를 향해 커지는 욕심! 삼각관계 본격 점화!

'사랑한다고 말해줘' 정우성을 둘러싼 관계망이 얽히기 시작했다.

지난 1일 공개된 지니 TV 오리지널 '사랑한다고 말해줘'(연출 김윤진, 극본 김민정,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스튜디오앤뉴·아티스트스튜디오, 원작 일본 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각본 키타카와 에리코·제작 TBS 텔레비전)) 11회에서는 차진우(정우성 분)의 개인전 준비와 함께 마음의 혼란을 겪는 정모은(신현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차진우는 송서경(김지현 분)의 사과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헤어진 이후의 시간은 각자의 몫인 거야. 그리고 네 말이 맞아. 그때의 나는 이제 없으니까. 혹시 마음에 남은 짐이 있다면 버려도 돼. 괜찮아"라고 말하고서 그대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러한 담담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디노'의 벽화를 누군가 신고하면서 재물 손괴 혐의로 경찰서에 가게 된 차진우. 통역을 위해 동행한 송서경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차진우가 디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헤어지고 난 뒤의 7년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더라"라며 넌지시 말을 꺼냈다. 이에 차진우는 "자꾸 나에게서 지나간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 누구의 잘못이든 상관없어. 이젠 필요 없어"라며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아프게 상처를 주며 떠났던 이를 향한 원망이었다. 송서경을 뒤로하고 돌아선 곳에는 정모은이 서 있었고, 차진우는 겨우 화를 가라앉히며 그와 함께 자리를 떴다.

무슨 일인지 묻는 정모은에게 차진우는 디노로서의 활동을 고백했다. 또한 그는 제주도에서 정모은이 벽화에 남겨두었던 쪽지까지 꺼내 보이며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펼쳐봐요. 이걸 읽으면 왠지 그림을 계속 그려도 좋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라고도 했다. 처음부터 서로의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모은은 환하게 웃음 지었다.

깊어지는 사랑과는 별개로 차진우와 송서경의 관계는 계속해서 정모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센터 내에는 이미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이 암암리에 퍼져 있었다. 마침내 열린 개인전 개최 당일에도 차진우의 곁에 있는 이는 통역가 역할을 맡은 송서경이었다.

이어진 잠깐의 쉬는 시간, 차진우와 함께 센터 한 켠에서 휴식을 취하던 정모은은 뜻하지 않게 송서경과 권도훈(박기덕 분)의 말다툼을 듣게 됐다. 누가 들을까 목소리를 낮추는 송서경과 달리 울분에 찬 채로 "나 같은 게 무슨 남의 이목을 신경 써. 송서경 스토킹하다가 미대에 불까지 지른 놈인데"라며 성을 내고 있었다.

그는 이어 "너 이러는 이유가 진짜 뭐야. 차진우 스타 작가 만들어서 다시 잘해보고 싶은 거야? 너 아직도 차진우 못 잊은 거냐고"라며 몰아붙였고, 송서경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원치 않는 진실 앞에 선 정모은과 이를 알지 못하는 차진우의 대비는 앞으로의 전개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날 서로 다른 감정으로 마주한 정모은과 윤조한(이재균 분)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배역 준비를 위해 윤조한의 집을 찾은 정모은은 오지유(박진주 분)과 정모담(신재휘 분)이 사귀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에게 전했다.

이에 깜짝 놀라면서도 "모담이가 많이 힘들었겠네. 좋아하는 거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했겠어. 넌 몰라, 넌 아무도 모르게 친구 짝사랑해 본 적 없잖아"라고 말한 윤조한. 애틋한 눈빛 속에서 넘치는 감정은 보는 이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다.

지니 TV 오리지널 '사랑한다고 말해줘' 12회는 오늘(2일) 밤 9시 지니 TV, 지니 TV 모바일, ENA에서 공개된다.

최만식/기자

'미스트롯3' 시청률X화제성 올킬! 도파민 폭발 이유 셋!

TV CHOSUN '미스트롯3'가 시청률과 화제성을 올킬하며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의 이름값을 증명했다.

TV CHOSUN '미스트롯3'가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렸다. 지난 28일 방송된 '미스트롯3' 2회는 전국 시청률 16.3%(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 목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2주 연속 주간 예능 압도적 1위를 달성했으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17%(이수연 '울아버지' 무대)까지 치솟았다.

온라인 화제성도 폭발했다. 첫 방송 후 일주일간 클립 영상 통합 조회수가 지난 시즌인 '미스터트롯2' 대비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화제성 조사 플랫폼인 굿데이터 펀덱스(FUNdex)에서 발표한 12월 3주차 조사에서 TV&OTT 통합 비드라마 1위를 기록했다. 오디션 끝판왕이자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답게 시작부터 대기록을 쓰고 있는 '미스트롯3'가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비결을 짚어봤다.

72인 최정예 자신감 이유 있었다! '신선한' 신성들의 압도적 실력

'미스트롯3'가 초반부터 흥행 돌풍을 일으킨 원동력은 치열한 예심 끝에 제작진이 고심해 선발한 72인 최정예 트로트 신성들의 활약 덕분이다. 역대급 실력자들의 지원 행렬에도 72인으로 압축한 제작진의 자신감은 통했다.

신선한 트로트 새 얼굴들이 압도적인 실력과 넘치는 끼, 다채로운 매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 심금을 울리는 표현력과 노련한 내공의 풍금·배아현·이하린·천가연은 소름을 유발하며 역대 최강 현역부의 힘을 보여줬다.

'트로트 아이돌'의 이름값을 증명한 김소연·오유진, 장윤정으로부터 초대 가수 실력이라는 인정을 받은 김나율·채수현, 성악 발성을 벗어던진 '트로트 임수정' 염유리, 정서주라는 장르의 탄생을 알린 '리틀 이미자' 정서주가 트로트판을 흔들었다.

여기에 '나로호 고음'으로 전율을 안긴 복지은, 짙은 감성을 폭발시킨 나영·진혜언, '트로트 신동' 고아인·빈예서·이수연·한수정, 시원시원한 가창력의 방서희·양서윤 등이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강자들의 진검승부! 1라운드 데스매치가 불러일으킨 美친 박진감

1라운드부터 1대 1 서바이벌 배틀을 도입한 '미스트롯3'의 승부수는 통했다. 두 명 모두 올하트를 받는 '더블 올하트'가 아닌 이상 반드시 한 명은 떨어지게 돼 있는 숨막히는 '트로트 전쟁'이 펼쳐졌다.

덕분에 막강한 실력자들이 생존을 위해 칼을 제대로 갈았다. 박진감 넘치는 경연은 손에 땀을 쥐게 했고 레전드 무대가 쏟아졌다.

타 참가자들 기피 대상 1호였던 풍금과 천가연의 벼랑 끝 승부, 팬덤을 들썩이게 만든 김소연과 오유진의 맞대결, 장윤정이 강자를 만났을 때 더 강해지는 스타일이라고 극찬한 21년차 소리꾼 오승하와 단단한 내공의 화연의 불꽃 튀는 대결 등이 전율을 선물했다.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 오디션 끝판왕이 선사한 카타르시스

단 2회 만에 드라마가 쏟아지며 카타르시스도 안겼다. 예상밖 빼어난 가창력으로 세상을 꺾고 뒤집은 반전 참가자가 가득한 것. 12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수빙수는 방어를 해체하는 기상천외한 퍼포먼스를 펼쳐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다채로운 재미를 안겼다.

'도전의 아이콘' 신수지는 환상적인 리듬체조와 트로트를 결합한 '백만송이 장미'로 올하트를 받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 격한 동작을 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호흡으로 놀라움을 안긴 신수지의 노력은 놀라움을 선사했다.

반전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한 수빙수와 신수지의 등판은 트로트 새 얼굴을 찾아내는 능력이 남다른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미스터 트롯'이라서 가능했다. 여기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용기를 낸 '19년차 댄스가수' 길건의 뭉클했던 무대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한편 세상을 꺾고 뒤집을 TV CHOSUN '미스트롯3' 3회는 오는 4일(목) 밤 10시 방송된다. 3회는 절대 강자들이 출격하는 1라운드와 함께 최강의 팀미션이 펼쳐질 2라운드가 시작된다.

최만식/기자

[2024 신년사] 청송군수 윤경희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어려움이 컸던 서리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새해 군정 목표를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에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8% 증액된 4,745억의 예산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정책과 생활이 넉넉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경제와 문화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청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정성과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나고 자라는 모든 것은 흙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경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날씨와 자연조건에 의존도가 높아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합니다. 작년 봄에도 3,900여 농가가 냉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냉해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세살수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한도를 2ha로 늘리고 보조 비율과 단가도 대폭 늘려서 농가 부담은 줄이고 피해예방 효과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송사과 연구단지에서 병해충에 강한 대목을 육성•보급하고과수화상병과 탄저병 등 전염병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 보험료와 농업인 안전 보험료,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가 유발 하는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일손 부족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농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미래 농업의 실현을 위해 농업 노동력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농업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꼭지 무절단은 노동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송군이 먼저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사과꼭지 절단은 도로 사정이 나빴던 70년대에 운송 중 과실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시작하여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포장재가 개선된 지금은과거처럼 과실 손상률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꼭지를 절단하면 절단면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꼭지 절단 사과를 불량품으로 취급합니다. 필요성이 없어진 꼭지 절단에 전국적으로 660억 원이 매년 낭비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관내 계통출하 조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출하처를 방문해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꼭지 무절단 사과 출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 확대를 경북 농업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을 잘 정착시켜 국내 사과시장 유통 방식을 노동력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기후변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민간투자 자금으로 진보면에 3만평 규모의 스마트농업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이 접목된 재배시설을 갖추고 연간 600억 정도의 농산물 생산과 2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진보 스마트 농업 단지가 청송군 스마트 농업과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송군 영농일자리 지원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구축과 농기계 지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을 통해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은 높은 영농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노인인구가 40%가 넘는 우리 군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품위 있고 활기찬 생활을 청송군이 돕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 기회를 늘려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여가 활동의 중심인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늘리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청송군이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집에 거주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보건의료 필수 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을 없애고,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어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환경도 만들겠습니다.

임신부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을 위한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 급여 지원금을 확대해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온종일 돌봄서비스,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부닥친 이웃도 살피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 지원하겠습니다. 이웃사촌 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는 국가적 수준의 도전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자연 감소보다 수도권과 인근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의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구 유출을 막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서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송읍 월막리에 청송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월막지구와 덕리지구에도 공동주택을 건립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청송군과 지역대학, 기업이 힘을 합쳐「청송군 K-U시티 항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돕는 항노화 연구지원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상품화하고, 지역학생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창업지원으로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구 주왕산 초등학교에 가족호텔과 글램핑장, 부대 시설을 갖춘 이색숙박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 음식 거리인 달기약수탕의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대표메뉴를 개발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지출하는 관광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등 청송의 자연과 문화적 특징을 살린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면 노후화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거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을 바꾸어야 합니다.

읍과 면소재지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도록 거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송 금곡지구 도시재생 인정 사업, 진보 진안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읍면 중심지에 행정, 상업, 문화 거점 공간을 만들어 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도 정비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청송읍 중앙로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에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해

밝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주거지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주택과 마을안길을 정비하고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급수구역 확장을 통해 취약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면 전선지중화 사업, 현서 안덕면 그린 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면 소재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송 아웃도어 골프연습장, 농업인 파크골프장, 산남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과축제에서 군민의 하나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청송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되는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군민 곁에는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보상이 커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려는 소명의식으로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2024년, 희망을 말씀하시는 분도, 과거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군민의 단결된 힘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청송군 공직자와 함께 희망을 기대하시는 분에게는 희망이 현실이 되고, 우려 하시는 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2024년을 만들겠습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청송군은 우리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4.1.2

청송군수 윤경희

윤근수/기자

[2024 신년사] 봉화군수 박현국 신년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집중호우 피해, 인구 3만 붕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발판 삼아 군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후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행정으로 군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일선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도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군정비전을 공유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봉화를 만들어 가는데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에 중점 추진해 나갈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형 스마트영농 구축과 젊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약화 된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정 혁신과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봉화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농 교육을 통해 우리 군 영농시스템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겠으며, 청년농업경영인과 가업승계 농업인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목적 농업인교육관을 신축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발맞춰 봉화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특산물 판로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날로 늘어나는 농작물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한 신기술 보급과 대체작목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돕고 농가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확대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촘촘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과 농작물병해충 방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모두가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변화된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광 트랜드 수요에 걸맞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으로 베트남 테마 관광콘텐츠를 선점하여 우리 군이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적 문화교류사업의 모범사례와 우호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분천산타마을을 글로벌 관광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해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낙동강 봉화권역 관광중심지 구축을 위해 낙동강테마공원 일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려인들을 위한 펫 빌리지를 조성하고, 구국도 31호선인 노루재를 활용한 스카이라이드 체험장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겠습니다.

또한, 명호면 범바위 일대에 스릴 넘치는 전망대를 구축하여 휴식과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천분교에 조성 중인 지역특화형 숙박시설의 조속한 추진과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내 민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해 머무는 관광숙박 인프라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셋째, 인구 유치 기반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군은 지방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인구 3만명의 벽이 깨졌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인구전략과를 신설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국가적인 인구감소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돌아보고 지역 특성과 가치를 살린 시책을 발굴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봉화바이오메디U-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청년인재 유출방지는 물론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중·단기 체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세대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구역외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고 특색을 살린 사업 발굴을 통해 우수한 등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인구감소 터닝포인트의 원년으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로 감동주는 맞춤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군민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발맞춰 노인일자리 확충과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지원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수요자 중심 따뜻한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운영과 방과후 학습비 지원 등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놀이터 조성, 석포면 국공립어린집 신축, 키즈카페 및 놀이시설 건립 등 다양한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고,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과 지역 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남북 9축 고속도로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 국지도 88호선 선형개량, 지방도 915·918호선 확포장 등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교통망 확충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인프라 확충,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친화적 환경조성 등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봉화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1조원 소득의 봉화시대 개막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노후되어 쇠퇴하고 있는 봉화·춘양 생활중심지를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봉화의 정주 환경을 확 바꿔 놓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해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농촌지역 빈집을 정비하고, 지방 상·하수도 확충,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행복콜 및 행복택시 운영으로 교통 약자와 취약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섬김의 행정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 군민참여 예산제도 운용,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소통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군민참여 정책자문위원회, 주민화합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군정 현안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을 구하고, 주민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내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꿈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적고, 발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백절불요(百折不撓) 자세로 군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를 위해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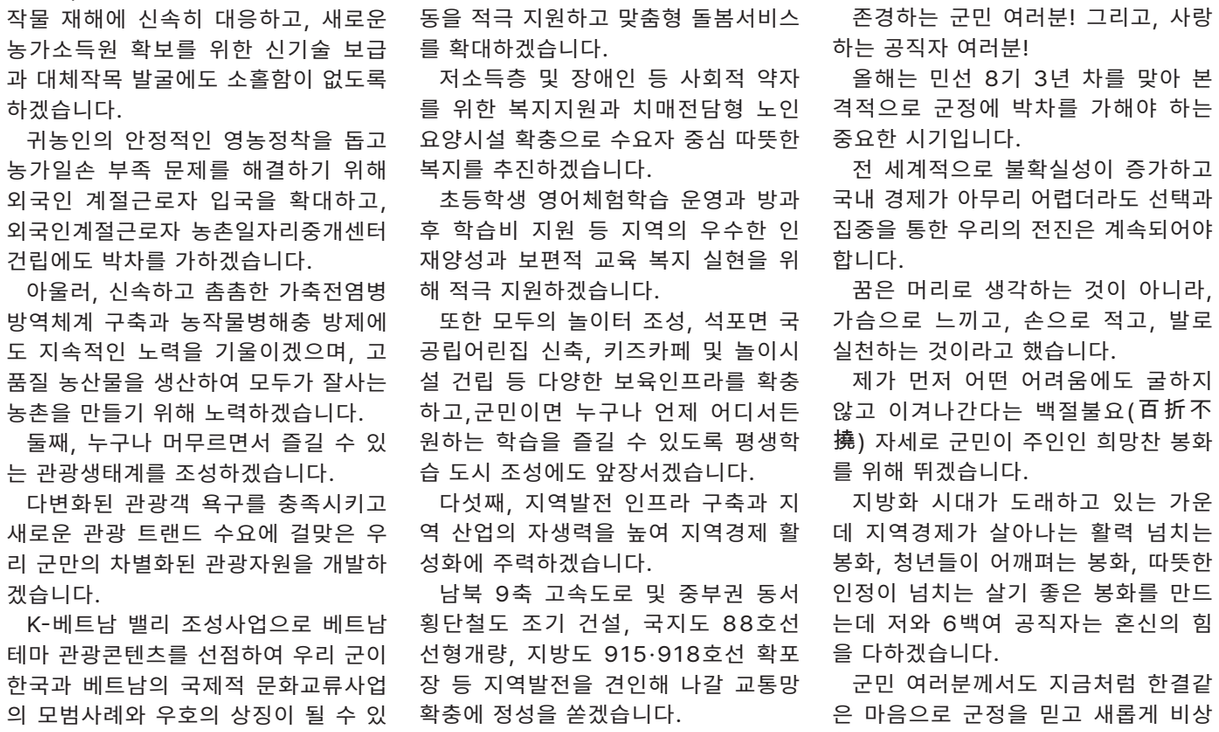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봉화, 청년들이 어깨펴는 봉화,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드는데 저와 6백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을 믿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금자/기자



[2024 신년사] 군위군수 김진열 신년사 '2024푸른용의 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자랑스러운 30만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공직자 여러분!

2024년, 푸른 용의 상서로운 기운을 담은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러한 긍정의 기운이 군민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군위의 풍요와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 보면, 우리군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마주하며 순간 순간을 보람과 열정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왔습니다.

작년 7월 1일, 다사다난 했던 과정을 마무리 짓고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신공항 건설의 안정성은 더해지고 관련 사업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어 명실공히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중심지로서 대구·경북의 번영과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태풍 「카눈」의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전 군민의 굳건하고 단합된 힘은우리군의 위기대응 능력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으며, 끊임없는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평가 2단계 상승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두 손 맞잡고 함께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은 지금껏 우리가 함께 이루어냈던 성과에 열정이 더해져 보다 큰 군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밀리터리 타운 유치! 그리고, 군위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프로젝트 사업까지 더 많은 기회와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한손으로는 잡을 수 있고, 두손으로는 도울 수 있으며,여러손으로는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500여 공직자들 또한 과감한 혁신과 주민 화합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시대에 대비한 신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로의 편입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무한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구의 5대 미래 신산업을 기반으로한 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30만명 규모의 에어시티를 위한 배후산업단지 및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에너지 자급 전략까지 철저한 준비로 군위중심 경제생태계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또한, 연내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전철화를 포함한 철도, 신공항 연계 관통도로, 팔공산 관통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간선 교통망과 이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연계 방안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밀리터리 타운 유치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들이 바라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당직진료실 운영, AI 명의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의 공공의료 복지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보듬 서비스, 돌봄 공동체 분위기 조성 서비스 사업, 어르신 돌봄체계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가 든든한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보통합의 시대 흐름에 맞춰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보육과 교육의 공백을

채워나가고 청소년가온누리관과 아이사랑 키움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군위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손해"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도입,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추진과 같은 군위만의 특화된 교육 지원으로 지역인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가 든든한 군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살맛나고 활력넘치는 농촌 프로젝트를 구현하겠습니다.

군위읍 도시재생 및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7개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생활 공감형 SOC를 확충하고 주민이 직접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군위형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군위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등으로 젊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 수당과 경축순환농업의 지속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개소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가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편입에 따라 넓어진 농산물 소비·유통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소비 체계의 푸드플랜 유통 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스마트농업밸리 프로젝트를 구체화하여 대구 농업정책의 표준이 되는 K-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이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한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막대한 피해와 아픔을 겪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군민의 응축된 힘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도 얻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백서발간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피해지역의 항구적 복구와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발맞춰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화된 하천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스콘 공장 인허가와 같은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지속적인 축산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선제적 수립으로 보존과 지속 성장을 동시에 충족하는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군위만의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삼국유사가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도록 더 큰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문화 매력 100선」으로 선정된 삼국유사 테마파크에 아이누리키즈 파크,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더하여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삼국유사 문화콘텐츠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180홀 규모 전국 최대 산지형 파크골프장과 노인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연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가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고 팔공산 주변 명소화 사업 추진과 대구광역시를 대표하는 축제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도시민의 쉼이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 대구시의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갖춘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대구의 프리미엄 생활권에 군위만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더해 주민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청렴군민 감사관제도, 군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원스톱 민원처리반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춰 군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누구나 행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울어져 있던 경쟁 구도를 바로 잡고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행정의 경쟁력이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군민중심의 열린행정, 공감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2024년에는 대구 굴기의 핵심 전초기지로서 대구시의 대규모 정책사업과 공간개발 정책이

기회의 땅! 군위를 무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변화와 도전의 또다른 이름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에 열정을 더해 군위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들은 군위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당당한 행정으로 2024년도 군위의 비상을 함께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풍만하고 인정이 넘치는 한해,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값진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군위군수 김 진 열

김동현/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복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